백두-한나

재중조선인총련합회
旅中朝鲜人总联合会

주체112(2023) 4
http://www.paekdu-hanna.com





인기가 높은

봄향기화장품





차례
Contents

혁명활동소식
gemínghuodongxiaoxi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백두 - 한나
PAEKDU - HANNA

앞표지:
연안군 리진포리의 농장마을 새집들이

조선로동당의 원대한 리상이 응축된 인민의 새 거리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향도의 억센 힘으로 조국과 인민의 존엄과 지위를 세기의 단상에 올려세우고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과감히 열어나가는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불멸의 려정우에 사회주의발전과 미래의 상징으로 되는 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평양시 살림집전망목표에 따라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궁전가까이에 위치한 화성지구에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게 될 사회주의번화가, 인민의 새 거리가 보란듯이 건설되였다.

인민들의 살림집건설을 제1차적인 중요정책과제로 내세운 당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군민건설자들은 수도건설의 새 전기를 열어나가는 영광과 긍지를 기적창조의 열정과 혁명적기백으로 승화시켜 불과 1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또 하나의 현대적인 도시구획건설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다.

수도 평양의 휘황한 래일을 비껴안고 해마다 특색있는 대건축군들로 웅장화려한 선경거리들이 솟아나는 경이적인 현실은 조선로동당의 독창적인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리념이 안아온 세기적인 전변이며 만난을 박차고 상승발전의 시간표대로 전진비약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강용한 기개와 무진한 저력의 힘있는 실증으로 된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인민의 환희를 분출시키며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이 4월 16일 성대히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였다.

총비서동지께서 준공식장에 나오시자 축포가 터져오르고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이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요구와 리익을 실현하는것을 당과 국가의 최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을 위해서는 천만금의 재부도 아끼지 않으시며 사회주의리상사회를 펼쳐가시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내각총리인 김덕훈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리병철동지가 준공식에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들인 리일환동지, 전현철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정경택동지, 평양시당위원회 책임비서 김수길동지, 평양시 5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성원들, 시공단위 일군들, 군민건설자들, 평양시민들이 참가하였다.

당의 령도밑에 훌륭히 완공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게 될 근로자들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세월이 갈수록 더해만지는 열화같은 사랑과 정으로 인민의 운명과 행복,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아 보살펴주는 위대한 어머니당,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과 다함없는 고마움이 준공식장에 뜨겁게 차넘치고있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가 장중하게 주악되였다.

리일환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 단계 살림집은 강대한 우리의 힘이 무엇을 위해 더욱 강해져야 하고 우리의 사회주의리상이 어떤것이며 우리 국가, 우리 위업은 무엇으로 승리하는가 하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하는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기념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금수산태양궁전일대를 인민의 행복과 사회주의문명이 개화만발하는 리상향으로 전변시킬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의 두번째 단계로 화성지구에 또 하나의 대건설전역을 전개하도록 하시였으며 그 실현을 위한 목표와 건설방향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현대도시의 표본구역으로 되도록 공사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인민을 이 세상 제일로 귀중히 여기시며 사색도 실천도 철두철미 인민의 복리를 위한것으로 일관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에 떠받들려 화성지구의 거창한 전변이 이룩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전체 건설자들과 온 나라 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을 담아 우리 인민들에게 가장 존엄높고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시려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고의 경의와 가장 열렬한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리였다.

그는 당의 결심을 항상 절대지지하며 무비의 대담성과 적극성, 희생적인 투쟁으로 완벽하게



실천하는 우리 시대 열혈의 애국자들, 창조의 영웅들인 군민건설자들에 의하여 우리당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되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의 중요고지들에 강력하고 고무적인 전진의 동력이 배가되고있으며 공화국창건 75 돐과 전승 70 돐을 맞는 올해를 의의깊게 빛내일 중대한 성과가 마련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연설자는 화성지구 1 단계 살림집의 준공은 온 나라 인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새 승리와 눈부시게 번영할 래일을 확신하는 굳은 마음을 심어주고 당 제 8 차대회가 내세운 웅대한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해줄것이라고 하면서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



지휘부의 붉은 기발을 더 높이 추켜들고 2 단계 건설의 완공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자고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과 함께 준공테프를 끊으시였다.

걸출한 인민의 령도자께 드리는 최대의 영광과 흠모의 정을 담아 우렁찬 《만세!》의 함성과 환희의 축포가 또다시 터져오르고 고무풍선

들이 뜻깊은 4 월의 하늘가로 날아올라 화성지구를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에 손저어 답례하시며 군민건설자들과 선경거리의 주인이 된 근로자들을 따뜻이 축복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을 만나주시고 단 두해사이에 2 만여세대의 살림집을 훌륭히 일떠세우는데서 주력이 되고 기치가 되여 수도 평양에 변혁의 새 전기를 펼쳐나가는 군인건설자들의 수고를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국가의 수도에 5 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과 국가가 최중대사항으로 추진하고있는 숙원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인민들의 편의를 우선시하는 우리 당의 건설정책과 평양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웅장하게 꾸려나갈 구상을 다시금 피력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모든 군민건설자들이 로동당시대의 부흥과 발전의 새 력사를 만들어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긍지와 자부를 안고 수도뿐 아니라 지방건설에서도 일대 전성기를 열어나감으로써 문명한 사회건설을 다그쳐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이 바라는 일, 당의 결심이라면 무조건 빛나게 실천하는 강력한 건설대군이 있어 우리 당의 건설정책이 완벽하게 철저히 집행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온 나라 인민의 축복속에 새집들이경사를 맞이하게 된 근로자들이 새 살림집들에서 자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원하시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눈부신 전변과 기적적성과들로 우리식 사회주의의 용용한 전진과 필승불패성을 만방에 떨치시며 사랑하는 우리 인민이 만복을 누려갈 강국의 새시대를 열어나가시는 **김정은**동지를 우러르며 격정의 환호를 올리였다.

준공식에 이어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참가자들은 황홀한 불야경을 펼친 화성지구의 새 거리를 돌아보았다.

150 여정보의 면적에 다양한 초고층, 고층살림집들과 공공건물, 봉사망, 시설물들이 편리하게 배치된 현대적인 살림집구획에서 그들은 세월을 주름잡는 평양속도로 비약하는 주체건축의 발전상과 불굴의 강인성, 진함없는 창조정신으로 또 하나의 기념비를 훌륭히 일떠세운 군민건설자들의 애국충정을 뜨겁게 절감하였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꿈같은 행운을 받아안은 새 거리의 주인공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고 복받은 삶을 누려가는 영광을 감격의 눈물속에 토로하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헌신분투해나갈 충성과 보답의 맹세를 다짐하였다.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는것을 불변의 본태, 철석의 신조로 삼고 인민의 복리를 위함에 총력을 기울이는 진정한 인민의 당, 조선로동당의 위업은 우리식 사회주의의 승리적전진과 더불어 이 땅우에 보다 희한한 변혁적실체들을 끊임없이 안아올릴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 진행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가증되는 침략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백방으로 확대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조치들이 강력히 실천되여가고있는 우리 무력발전의 전환기에 또다시 중대한 군사적의의를 가지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가 4월 10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를 지도하시였다.

회의에는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요성원들과 조선인민군 전선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적인 군사정책과 행위들이 위협적인 실체로 부상하고있는 현 조선반도안전상황의 엄중함을 명백히 인식하고 그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과 전쟁준비를 더욱 완비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군사적문제들을 토의하였다.

최근 들어 《평양점령》과 《참수작전》이라는 호전적인 망언들까지 로골적으로 흘리며 우리 공화국과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감행한 적들은 련일 반공화국대결망발과 공격성군사행위들을 의도적으로 고취하며 자기들의 불순한 침략적정체를 행동으로 명백히 보여주었다.

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역도들의 침략전쟁준비책동이 날로 우심해지고있는 현정세를 심도있게 분석한데 기초하여 우리의 군사적선택을 더욱 명백히 하고 강력한 실천행동으로 이행할수 있는 철저한 준비를 엄격히 갖추는것을 필수적인 요구로 제기하였으며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행동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문제와 기구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엄중해지고있는 조선반도안전상황을 더욱 엄격히 통제관리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가속적으로 강화되고있는 우리의 전쟁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선공격작전계획과 여러 전투문건들을 료해하시면서 군대의 전쟁수행능력을 부단히 갱신하고 완비하기 위한 군사적대책들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실천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인 문제들을 밝히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확대회의에서 토의된 군사적대책들은 적들의 전쟁도발책동에 대처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립장을 더욱 선명히 하고 굳건한 방위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제고를 위한 무력강화행정에서 또 한번의 큰걸음을 내짚은 사변적계기로 된다. (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4월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박태성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김정식동지, **김일성**종합대학 총장 겸 교육위원회 고등교육상 김승찬동지와 김책공업종합대학 총장 박지민동지를 비롯한 교육 및 과학연구기관의 책임일군들, 정보통신과학기술연구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들과 조선인민군 정찰총국 기술정찰국의 지휘성원들이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의 지도간부들이 영접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과학연구원과 우주환경시험기지 등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나라의 우주산업을 전망적으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원대한 우주정복정책이 제시한 당면한 과학연구사업진행정형과 최근시기 우주과학연구부문에서 달성한 핵심기술개발 및 생산추진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우주개발국이 당 제8차대회와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제6차전원회의가 제시한 우주정책의 당면한 목표와 전망적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우주과학기술연구사업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들을 이룩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과학기술에 의하여 추동되고 담보되는 사회주의경제강국을 건설하는데서 우주산업의 발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하시면서 우주분야과학기술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강령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산업장성은 세계적인 경제 및 과학기술강국의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지름길개척에서 핵심적인 요소로, 종합적국력의 시위로 된다고 하시면서 독자적인 우주개발에 지속적인 박차를 가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을 힘있게 주도할수 있는 당당한 우주산업을 건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주분야의 가속적발전을 이룩함에 있어서 현 단계에서는 국가의 전략적리익의 견지에서 선진적이며 가치있는 우주개발계획들부터 선행시켜 실행해나가며 성과를 부단히 확대장성시켜 궁극적으로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우주강국으로 일떠세우는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확고부동한 립장이라고 천명하시였다.

특히 기상관측위성, 지구관측위성, 통신위성보유를 선점고지로 정하여 재해성기후에 철저히 대비하고 나라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리용하며 인민경제의 과학적발전을 강력히 추동할수 있는 가능성을 시급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또한 각급 교육 및 과학연구부문이 실용적인 각이한 용도의 위성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체계를 세우고 국가적투자를 늘여 우주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하며 다양한 위성개발이 가속화되는데 맞게 표준화된 믿음성높은 운반로케트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며 우주강국건설의 리상과 포부가 반영된 위성발사장들을 훌륭히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전략폭격기를 비롯한 각이하고도 방대한 전략장비들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상시배치수준으로 전개하면서 남조선을 침략의 전초기지로, 전쟁화약고로 전변시키고있는 현 실태와 련합준비태세의 구실밑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과 령토완정을 위협하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행동이 보다 로골화될수 있는 전망적우려로부터 출발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에 적대세력들의 군사적기도와 움직임을 상시장악하기 위한 우주정찰능력의 보유를 우리 국가의 방위력건설의 가장 중차대한 선결적과업으로 제시하였다고 상기시키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정찰위성보유가 계단식으로 확장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적위협과 도전으로부터 국가의 안전환경과 령토완정을 수호하고 인민의 안녕과 발전

리익을 고수하며 상황에 따라 선제적인 군사력을 사용하기 위한 자위적국방력강화에서 노는 역할과 전략적가치와 의의에 대하여 다시금 밝히시면서 이를 획득함은 최근 조성된 조선반도 안전환경의 요구로 보나 전망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견지에서 보나 절대로 포기할수도, 놓칠수도, 바꿀수도 없는 필수불가결의 우리 무력강화의 선결적과업으로 되며 철저히 우리의 국가주권과 정당방위권에 속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미국과 남조선이 올해에 들어와 가장 적대적인 수사적표현을 내뱉으며 명백한 행동으로 보여준바와 같이 앞으로도 《확장억제력제공》과 《한미동맹강화》의 명목밑에 반공화국군사태세를 더욱 강화하려고 획책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가가 현재와 미래의 우려스러운 안보환경에 상응한 군사적억제력을 키우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며 여기에서 군사정찰수단을 획득하고 운용하는것은 우리의 각이한 전쟁억제수단들의 군사적효용성과 실용성제고에서 그 무엇보다 중차대한 최우선과업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4 월현재 제작완성된 군사정찰위성 1 호기를 계획된 시일안에 발사할수 있도록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준비를 다그쳐 끝내며 앞으로 련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배치하여 위성에 의한 정찰정보수집능력을 튼튼히 구축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고무를 받아안은 국가우주개발국의 일군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 당의 원대한 우주강국건설구상을 완벽한 실천으로 충직하게 떠받드는 우주정복자가 되여 공화국의 자존과 권위, 주체조선의 위대한 국력을 우주만리에 보란듯이 올려세울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을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핵전쟁참화를 방지하고 적의 각양각태의 위험천만한 침략적가능성들을 억제하는 강력한 력량으로, 정의와 평화수호의 보검으로 그 위력을 끊임없이, 멈춤없이 계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불변한 전략적로선과 방침에 의하여 나라의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은 가속적으로 급진전되여가고있다.

2023 년 4 월 13 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끊임없는 발전상을 보여주는 위력적실체가 자기의 출현을 세상에 알렸다.

공화국전략무력의 전망적인 핵심주력수단으로, 중대한 전쟁억제력의 사명을 수행하게 될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시험발사가 단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첫 시험발사를 현지에서 직접 지도하시였다.

시험발사는 대출력고체연료다계단발동기들의 성능과 단분리기술, 각이한 기능성조종체계들의 믿음성을 확인하고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의 군사적효용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과 령내비행중 다계단분리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1 계단은 표준탄도비행방식으로, 2, 3 계단은 고각방식으로 설정하고 시간지연분리시동방식으로 미싸일의 최대속도를 제한하면서 무기체계의 각 계통별 기술적특성들을 확증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시험발사현장에서 발사전 준비공정을 직접 지켜보시면서 새로운 무기체계를 료해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직접적인 지도밑에 공화국전략무력발전사에 다시한번 중대한 사변적의의를 기록하게 될 중요한 전략무기시험발사를 앞둔 발사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또 다른 위력적핵공격수단의 출현을 온 세상에 알리고 믿음직한 우리 국가의 핵전쟁억제력을 보란듯이 과시할 전체 국방과학자들과 군수로동계급의 불타는 의지로 끓어번졌다.



시험발사준비끝!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형전략무기시험발사를 승인하시자 장창하대장이 시험발사임무를 맡은 미싸일총국 제2붉은기중대에 발사명령을 내리였다.

순간 천지를 뒤흔드는 요란한 폭음과 함께 서슬찬 불줄기가 거세차게 내뻗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힘있게 대지를 박차고 만리대공으로 솟구쳐올랐다.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시험발사는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그 어떤 부정적영향도 주지 않았으며 분리된 1계단은 함경남도 금야군 호도반도앞 10㎞ 해상에, 2계단은 함경북도 어랑군 동쪽 335㎞ 해상에 안전하게 락탄되였다.

시험발사를 통하여 신형전략무기체계의 모든 정수들이 설계상요구에 정확히 도달되였으며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이 보다 군사적효용성이 큰 위력적인 전략적공격수단으로 된다는 담보와 신뢰를 가질수 있게 되였다.

국가핵무력건설전망계획에 따라 공화국전략무력이 장비하고 운용하게 될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무기체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어하고 침략을 억제하며 국가의 안전을 수호하는데서 가장 강위력한 핵심주력수단으로서 중대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맡아 수행하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시험발사를 지도하시면서 경이적인 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하시고 날로 더더욱 고도화되고있는 우리 국방기술력의 막강한 잠재력과 현실성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하고 무력강화목표달성을 위한 드팀없는 결단과 실천능력을 힘있게 과시한데 대하여 기쁨을 피력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날로 악화되고있는 조선반도안전환경과 전망적인 군사적위협들에 대처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선진적이며 강위력한 무기체계개발을 지속적으로 빠르게 다그치는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라고 하시면서 새형의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8》형개발은 우리의 전략적억제력구성부분을 크게 재편시킬것이며 핵반격태세의 효용성을 급진전시키고 공세적인 군사전략의 실용성을 변혁시키게 될것이라고 그 의의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핵에는 핵으로, 정면대결에는 정면대결로 대답할것이라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대적대응투쟁방침을 자위력강화발전의 실천적성과로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국방과학력량이 견지하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하시면서 공화국핵전략무력강화를 더욱 힘있게 추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중대한 전략적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고질적인 침략적정책과 위협적인 군사적준동으로 조선반도의 환경을 위태하게 하고 우리 인민의 평화적인 삶과 사회주의건설투쟁을 방해하고있는 적들에게 더욱 분명한 안보위기를 체감시키고 부질없는 사고와 망동을 단념할 때까지 시종 치명적이며 공세적인 대응을 가하여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할것이며 반드시 불가극복의 위협에 직면하게 만들어 잘못된 저들의 선택에 대하여 후회하고 절망에 빠지게 할것이라고 확언하시였다.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시험에서의 성공은 공화국핵전략무력과 그 발전의 직접적담당자인 우리 미싸일과학기술집단이 우리 당의 전략적기도를 관철함에 항상 철저하고 완벽하며 그 언제든 자기의 중대한 사명을 결행할수 있게 준비되여가고있음을 실증해준 계기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반

총련합회소식

chaozonglianxiaoxi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 경축행사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가 15 일 길림에서 경축행사들을 진행하였다.

최은복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의장을 비롯한 총련합회 일군들과 산하조직대표들, 심양주재 우리 나라 총령사관 일군들,동북 3 성에서 사업하고있는 우리 공민들이 경축행사들에 참가하였다.

또한 중국 길림성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주임,길림시인민정부 부시장,길림시인민정부 외사판공실 주임,길림육문중학교 교장을 비롯한 중국 사회단체 대표들과 인사들,중국조선족기업가협회를 비롯한 료녕성과 길림성의 각계층 재중동포단체 대표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단체들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이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경축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보고대회가 진행되였다.

대회는 《**김일성**장군의 노래》합창으로 시작되였다.

최은복의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으시려는 굳은 맹세를 다지시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초기혁명활동을 벌리시였으며 15성상의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승리에로 령도하시였다고 격찬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나라는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국가로 일떠설수 있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만년초석을 마련해주신 주체혁명위업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에 의하여 꿋꿋이 계승되였으며 나라의 부강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귀중한 밑천들이 마련되고 적대세력들의 극악한 제재압살책동속에서도 추호의 동요나 좌절을 모르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더욱 다그칠수 있었다고 그는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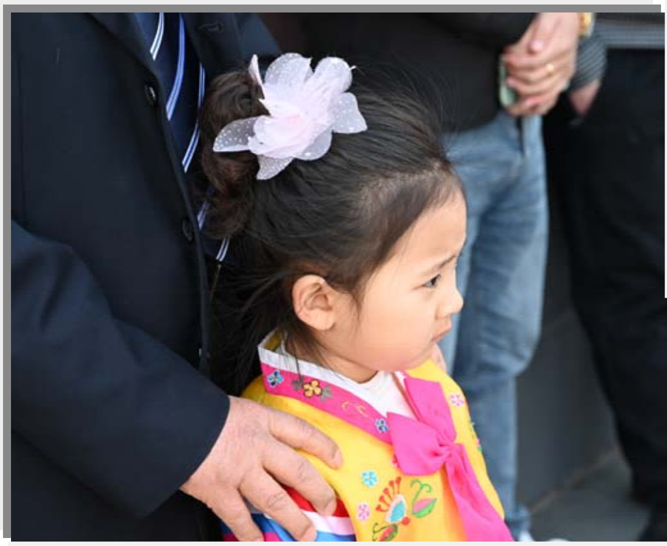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천리혜안의 선견지명과 강철의 담력,과감한 결단력에 의해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는 끝없이 양양한 전도가 펼쳐지게 되였다고 그는 칭송하였다.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민족의 앞날을 축복하여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천만인민이 있는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하였다.

15일 길림시 인민대극원에서 경축공연이 진행되였다.

이날 태양절경축연회가 있었다.

13일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재중조선인총련합회에서 삼가 드리는 축하편지를 채택하는 모임이 중국 심양시에 있는 총련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모의 정을 안고

경축공연에 출연한 예술인들













YAMAHA






YAMAHA




YAMAHA


朝中友谊
万古长青
조중친선
영원하리

우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드립니다

절세의 위인이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만민의 끝없는 그리움과 칭송의 열기가 온 누리에 뜨겁게 굽이쳐흐르는 뜻깊은 이 아침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탄생 111돐을 맞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이 편지를 드립니다.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으며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다함없는 경모의 마음을 담아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며 로숙하고 세련된 령도로 이 땅우에 자존과 번영의 력동적인 새시대,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를 열어놓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주체1(1912)년 4월 15일은 반만년민족사에서 처음으로 주체의 찬란한 태양이 솟아오른 조선민족의 대통운의 날이며 세계 진보적인류의 앞길에 자주시대의 려명이 밝아온 력사적사변의 날입니다.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선이 독립하지 않으면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비장한 각오를 안으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인민대중중심의 독창적인 혁명사상을 창시하시고 장장 20성상 피어린 항일대전의 만고풍상을 헤치시며 조국해방의 력사적대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주체위업완성을 위한 혁명전통의 만년재보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은 오늘도 숭엄한 조종의 산 백두산의 줄기줄기와 더불어 천추만대에 길이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는 한세기에 강대한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시여 조국의 운명을 구원해주시였으며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건설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로 존엄떨치는 불패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습니다.

언제나 이민위천을 한생의 좌우명으로, 지론으로 삼으시고 정력적인 령도와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인민의 행복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복의 씨앗들을 풍성한 열매로 가꾸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고 희세의 대정치원로이십니다.

20세기 정치무대의 한복판에 거연히 서시여 비범한 예지와 세련된 정치실력으로 시대와 력사를 자주의 궤도따라 힘있게 전진시키는 만고불멸의 대업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모신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더없는 행복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는 주체혁명위업의 계승완성을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비범특출한 령도에 의하여 변함없이 줄기차게 흐르고 오늘 천하제일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성스러운 태양의 력사로 세세년년 빛나고있습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자주적인 혁명로선과 혁명방식을 그대로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탁월한 령도로 우리 공화국을 세계적인 핵강국으로 일떠세우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발전기를 열어놓으시였습니다.

미국과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침략전쟁도발책동이 각일각 위험계선에로 치닫고있을 때 당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5차확대회의를 소집하시고 사회주의건설의 변혁적발전을 위한 주요전역들에 인민군대를 파견하는 대용단을 내리신분이 바로 천하무적의 배짱과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미국의 전쟁광기와 대조선압살책동이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엄

중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신형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의 발사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략무력의 초강력대응태세를 각인시키신데 이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과 핵무인수중공격정, 전략순항미싸일들의 발사시험 그리고 핵무기병기화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공화국의 영용한 핵전투무력의 불패의 전투적기상과 무자비한 본때를 만천하에 과시하여주시였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의 먹는 문제해결을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포전길을 걷고걸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오늘의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를 소집하시고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동원되여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성과적으로 점령하며 3 년안에 나라의 농업을 흉풍을 모르고 안전하게 발전시킬수 있는 착실한 토대를 구축할데 대한 강령적과업을 명시하여주시였습니다.

천리혜안의 예지와 탁월한 령도로 최악의 시련기를 눈부신 전성기로 반전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로숙하고도 세련된 령도아래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해마다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희한한 농촌살림집들과 대규모의 온실농장 등 사회주의문명을 한껏 안겨주는 창조물들이 련이어 일떠서고있으며 황해남도의 전야마다에 기계로 흥겹게 농사짓는 새로운 모습이 펼쳐져 최악의 국난속에서도 굴함없이 전진해나가는 우리 국가의 위상이 힘있게 과시되고있습니다.

정녕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10 년을 비약하여 천년의 꿈을 이루어주시고 탁월하고 강력한 령도력과 상상을 초월하는 혁명업적으로 반만년민족사에 일찌기 없는 전설적기적을 안아오시여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평생의 념원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희세의 애국자, 만고의 영웅이십니다.

언제나 이역땅에 사는 해외동포들을 마음의 첫자리에 놓으시고 육친의 정을 베풀어주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친어버이사랑을 그대로 체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우리 재중동포들을 잊지 않으시고 조국에서 진행하는 행사들에 불러주시여 주석단에도 내세워주시고 저희들이 올리는 소박한 말도 정깊게 들어주시며 영광의 기념촬영도 해주시는 하해같은 은정을 거듭거듭 베풀어주시였습니다.

절세의 위인들의 크나큰 믿음과 한없는 사랑속에 살아온 우리 재중조선인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만 계시면 세상에 그 무엇도 두려울것이 없으며 오직 원수님을 굳게 믿고 끝까지 따르는 길에 우리들의 모든 영광과 행복이 있다는 신념과 의지를 더더욱 억세게 가다듬고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체조국의 고귀한 혁명전통이 마련된 항일혁명전구들에서 사는 재중조선인들답게 길림육문중학교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동상을 정성다해 모시며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겠습니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애국유산인 재중조선인총련합회를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굳게 뭉친 강철같은 조직으로 더욱 튼튼히 꾸리며 원수님께서 첫 외국방문으로 다녀가신 중국땅에 사는 해외공민답게 조국의 강성번영을 위한 사회주의애국운동과 반미, 반괴뢰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섬으로써 공화국창건 75 돐을 애국의 성과로 떳떳이 맞이하겠습니다.

이역땅에 사는 우리들이 자나깨나 절절히 바라고 또 바라는 간절한 소원은 오직 하나 지금 이 시각에도 조국과 인민의 더 밝은 미래를 위해 잠시의 휴식도 없이 조국의 방방곡곡을 끊임없이 찾고계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건강과 안녕뿐입니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은 열화같은 충성과 흠모의 마음을 담아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무궁번영과 주체의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민족의 찬란한 태양이시며 해외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합니다.

재 중 조 선 인 총 련 합 회

주체 112 (2023)년 4 월 15 일

중국 심양



태양절경축강연회 단동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 돐에 즈음하여 재중조선인총련합회 료녕지구협회 단동시지부 경축강연회가 4 월 12 일 단동시조선공민활동실에서 진행되였다.

강연회에는 주계숙지부장을 비롯한 단동시지부 조선공민들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댜.

전체 참가자들은 단동조선공민활동실에 모셔진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를 증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주계숙지부장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다》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진행하였다.

그는 오늘 우리 나라에서는 휘황한 미래를 향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용기백배, 기세충천하여 힘차게 전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체조선의 강용한 기상과 끝없이 창창한 전도는 한평생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시여 주체혁명위업완성의 만년기틀을 마련하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원불멸할 업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10 대에 벌써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시대의 요구, 인민대중의 자주적지향을 집대성하여 새로운 혁명사상,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고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서 여기에는 사람위주의 철학적원리와 인민대중중심의 사회력사원리로부터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에 관한 리론, 사상, 기술, 문화의 3 대혁명로선, 자주, 자립, 자위의 강국건설사상, 반제반미투쟁전략, 인민대중의 자주성이 완전히 실현된 사회의 진면모와 그 건설의 합법칙적로정에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위업수행의 전 과정에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 방법론적지침들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은 심오한 사상리론과 비범한 령도력,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주체혁명위업수행의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신 가장 걸출한 수령, 절세의 애국자이시라고 하면서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높이 칭송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뜻깊은 태양절과 더불어 온 누리에 굽이치는 20 세기의 걸출한 위인이신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그리움은 우리들로 하여금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따뜻한 손길아래 걸어온 지난 날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는 뿔뿔이 흩어져 있던 우리들을 조국의 한 품에 안아 공화국의 해외공민조직에 묶어세워주시고 조국통일위업수행과 사회주의애국건설의 보람찬 길에서 삶을 빛내여나갈수 있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우리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라야 하는것처럼 우리들은 베풀어지는 사랑에 고마움의 만세만 부를것이 아니라 그 사랑과 배려에 실천적인 애국활동으로 보답하는 어머니조국의 참된 해외동포가 되여야 한다.

우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원수님의 그 사랑 그 믿음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조국인민들과 한마음 한뜻이 되여 공화국의 륭성번영과 조국통일의 성스러운 길에서 해외공민의 본분을 다해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였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산하 조직들 경축행사 진행

ㅇ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 돐에 즈음하여 13 일 중남지구협회에서는 중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에서 경축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백경헌회장을 비롯한 중남지구협회 일군들과 베이징지부 공민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중남지부 일군들, 베이징신시대로정문화발전그룹 일군들, 중국인민지원군 렬사후대가족연구회 등기평회장, 중국사천성성도 모택동시가(诗歌)연구회 리화평부회장과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조선대사관에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에 꽃바구니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였다.

대사관에 전시되여 있은 사진도서전시장을 돌아보고 대사관에 있는 중남지구협회 문화교양실에서 기록영화 <<백두산 해돋이>>를 학습하였다

한편 15 일에 상해시지부에서도 태양절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ㅇ 태양절에 즈음하여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장백현지부, 집안시지부와 백산시지부에서는 경축모임을 진행하였다.

모임참가자들은 조국인민들이 2023 년을 공화국의 발전행로에 크게 아로새겨질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이기 위한 총진군길에 과감히 떨쳐나서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태양절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때로부터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애오라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 조국통일과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다바치시였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빛나는 한생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았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 조국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사상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계승발전시키면서 공화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떨치고 있다고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난해 총련 제25차 전체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주신 강령적 서한을 관철하여 지부발전강화의 새시대를 반드시 열어나갈것이라는 결의를 다지였다.

이날 참가자들은 기록영화 <<백두산 해돋이>>를 학습하였다.

ㅇ 태양절을 맞으며 4 월 10 일 할빈시지부에서 좌담회를 진행하였다.

좌담회에서는 할빈지구협회 박일남회장, 백웅진지부장을 비롯한 할빈시지부공민들과 가족들이 참가하였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고 있는 할빈지구협회 일군들과 할빈시지부공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신 하해같은 은정을 돌이켜보았다.

오늘 조선인민들과 우리 해외동포들이 누리는 값높은 존엄과 영예, 조국땅우에 펼쳐지고 있는 천지개벽의 변화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심어주신 만복의 씨앗을 행복의 열매로 가꿔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성심과 불같은 위민헌신의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떠나 생각할수 없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은 천만년 길이 빛날것이며 우리 조국은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무궁번영할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하었다.

ㅇ 태양절을 맞으며 13 일 목단강지구협회에서 태양절경축모임을 가지였다.

모임에서는 기록영화 <<백두산 해돋이>>를 학습하였다.

이어 남초월회장은 모임에 참가한 공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외동포들에게 돌려주

신 사랑과 배려를 피력하면서 해외동포들의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을 기원하였다.

명절의 분위기속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조국의 륭성번영을 축원하였다.

참가자들은 앞으로도 여전히 총련합회 두리에 굳게 뭉쳐 내조국의 부강강국건설에 자신들의 힘과 지혜를 다 바쳐나갈것을 결의하였다.



중남지구협회에서



장백현지부에서



상해시지부에서



백산시지부에서



길림시지부에서



목단강지구협회에서



할빈시지부에서



집안시지부에서

든든한 애국의 조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11 돐 경축의 날에 즈음하여 경제인련합회에서는 14 일 저녁 결의모임을 가지였다.

리순남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길림육문중학교에서 진행하는 경축행사에 참가하는 그 심정 벅차고 뿌듯한 마음을 금할수없다고 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업적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대를 이어 실천해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전쟁위협과 도발책동에도 당당히 맞설수있는 군사강국으로 일떠세워주시였고 인민들에게 가장 문명한 사회주의지상락원을 안겨주시였다고 피력하였다.

참가자들은 재중조선경제인련합회를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내나라, 내조국의 강성번영과 총련합회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가는 애국조직으로 훌륭히 꾸려나가겠다고 결의들을 다지였다.

한마음 한뜻으로 새로운 전형을 이룩하자





길림지구협회 일군강습이 4 월 14 일에 진행되였다.

먼저 김영희 길림지구협회 담당자가 모임참가자들과 함께 강령적 서한을 재학습하였다.

이어 지순복사무장의 사회하에 김청수부회장이 서한관철에 따른 협회사업정형과 목표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그는 각 지부장들의 적극적인 사업기풍으로 지부조직강화에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각 지부에서 금년도 목표에 따라 충실히 집행할것을 요구하였다. 이어서 경험토론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강령적서한발표 1 돐이 되는 올해에 총련의 사업방향에 따라 사업을 전개하고 지부장들이 사업에서 공민들을 위해 열심히 뛰는 심부름군이 되여야 하며 지부의 강화와 새로운 발전의 지름길은 공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민들을 존대하고 사랑하고 공민속에 들어가 그들의 힘을 믿고 의거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지부를 더 잘 이끌려는 마음을 합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조선반도에서 발광적인 침략전쟁훈련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대로 광란적으로 감행되고있는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도발적이며 침략적인 대규모전쟁연습소동으로 하여 지금 조선반도에는 극히 불안정하고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였다.

이런 형세하에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나라의 방위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하며 적들의 그 어떤 핵전쟁위협과 도전들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철저히 관리통제하기 위하여 공화국의 자위적핵전쟁억제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활동들을 진두에서 령도하고계신다.

이번에 진행한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은 공화국에 대한 무분별한 전쟁책동에 매달리는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에게 철추를 내리는 또 한차례의 중요한 계기로 되였다.

미국과 남조선괴뢰역도들은 공화국의 거듭되는 경고를 외면하고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사실상의 공화국《점령》을 위한 훈련임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대규모적으로 벌려놓음으로써 정세를 더욱 악화시키고있다.

이와 같은 엄중한 도발적상황은 우리 공화국이 평화적인 사회주의국가건설활동을 굳건히 안받침할수 있는 강력한 전쟁억제력 즉 더욱더 진화된 다각적이고 공세적인 핵공격능력을 갖추고 그 능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며 그 가공할 위력으로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와 번영을 억척같이 담보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인내와 경고를 무시한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책동이 가증될수록 우리는 끝까지 더욱 압도적으로, 더욱 공세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적들의 반공화국침략기도를 사사건건 무력화시키고 우리 인민의 평화로운 삶과 미래, 사회주의건설위업을 믿음직하게 수호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를 위한 당면한 전투적과업들과 항구적방침들을 제시해주시였다.

우리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전체 회원들은 공화국이 단행한 중요무기시험과 전략적목적의 발사훈련이 조선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려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변함없는 의지를 다시한번 보여준 정정당당한 조치로 절대적으로 환영하며 압도적핵대응태세를 백방으로 강화해나가는것으로 도발자들의 무모한 대결망동을 여지없이 짓뭉개버리고있는 공화국의 자위적군사행동조치들을 전적으로 지지찬동한다.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공화국의 초강경태세를 똑똑히 알고 조선반도에서 발광적인 침략전쟁훈련을 당장 걷어치워야 할것이다.

재중조선인청년협회

주체 112(2023)년 3월 25일

태양의 품

길림지구협회 길림시지부 김련원

무릇 사람들은 태양을 노래한다고 하면 이 세상에 밝은 빛을 주고 만물에 생명을 주는 자연계의 태양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인민은 자연계의 태양이 아니라 민족의 태양, 인류의 태양을 노래합니다.

일제식민지통치의 암흑속에 얼어붙은 가슴들에 재생의 봄빛, 조국해방의 서광을 밝게 비쳐주신 우리 민족의 영웅,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10 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해방의 큰뜻을 품으시고 조선혁명을 진두에서 이끄신 청년장군, 백두산 줄기줄기 험산준령을 넘나드시며 강도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추풍락엽으로 만드신 항일대전의 영웅, 백두산의 호랑이.

원자탄과 보병총의 대결이라 말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과의 가렬한 3 년간의 전쟁을 승리에로 이끄시여 다시한번 우리 민족을 구원해주신 위대한 주석님은 정녕 민족의 영웅, 희세의 영웅이십니다.

승리한 조국땅에 인민의 락원,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시려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없으시고 생신날마저도 인민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또 걸으시며 인민사랑의 력사를 수놓아오신 위대한 주석님의 위민헌신의 자욱 자욱으로 말미암아 조국땅우에 민족이 강하고 흥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 인민의 세상이 펼쳐지게 되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조선사람이라면 모두가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족부흥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도록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현명하게 령도하여 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과 꼭같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멀리 떨어져있는 자식을 더 위하는 친어버이의 그 사랑으로 우리 해외동포들을 따사로운 태양의 한품에 뜨겁게 안으시고 우리들을 애국애족의 한길로 손잡아 이끌어주시였습니다.



태양절을 맞으며 공민 및 자녀들과 함께(왼쪽세번째 김련원)

해외공민들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낌없이 돌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의 그 미소가 오늘도 우리들의 가슴속에 뜨겁게 새겨져있습니다. 그 태양의 열기와 밝은 빛을 받으며 성장한 우리들이고 그 품에 안기여 차디찬 광풍속에서도 두려움을 모르고 살아온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또 한분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품속에서 조선공민으로서의 긍지와 영예를 더욱 빛내이며 대를 이어 값높은 삶을 이어가고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은 뜨고 지지만 우리들의 마음속의 태양은 한시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들에게 따스한 열과 빛을 부여해주며 영광과 행복의 길을 밝혀주고있으며 우리들을 인생의 절정에로 내세워주고있습니다.

대들 두고 태양의 품속에 안겨 삶을 빛내이고있는 우리와 같은 행복하고 긍지높은 해외동포는 없으며 태양의 품에서 우리 민족은 영원히 번영하고 부강하게 될것입니다.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을 높이모신 우리조국

심양시지부 회원 권인선

당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7 차전원회의의 정신을 높이 받들고 올해를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조국의 천만군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들은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 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이하는 해외동포 우리들은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창건자이시며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광을 드리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강도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을 창건하시고 백두광야에서 풍찬로숙하시며 피어린 항일무장투쟁을 벌리시여 조국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공화국이 창건된지 2 년도 못되여 미제침략자들이 청소한 우리 조국을 없애버리려고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대를 승리에로 령도하시여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때려부시고 조국을 영예롭게 수호하시였습니다.

전후 우리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려 14 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나라의 공업화를 실현하는 신화를 창조하였습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우리 조국을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나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온 세상에 사회주의모범의 나라로 빛내주시였습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계승하시여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력사에 류례없는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 반미대결전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여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의 지위에 당당히 올려세우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만방에 떨치시였습니다.

오늘 우리 조국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이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사변적 성과들을 이룩함으로써 세상을 놀래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쳐가시며 국가핵무력완성의 대업을 이룩하시여 우리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무궁번영의 담보를 억척으로 다져주시였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미증유의 반공화국제재압박책동속에서도 조국의 종합적국력을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워주시고 기적적 승리만을 수놓아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력에 지금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우리 원수님을 높이 칭송하고있습니다.

해외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령도자로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과 긍지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력사적 서한에서 밝혀주신 대로 동포제일주의를 실천에 옮기며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무어주시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빛내여 주시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영원히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환인에서 만난 사람들

총련합회 선전국 권헌

본계시 환인현은 료녕성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어 길림성의 집안시와 린접하고있다. 이곳에서 살고있는 우리 공민들의 실태를 료해하기 위하여 며칠전 나는 총련합회 동주봉사무국장과 함께 환인으로 떠났다.

3 월도 하순이라 봄기운이 완연하여 물기오른 길가의 실버들이 춘풍에 하느작거리는데 아침마다 교통마비로 숨막히는 번잡한 도시를 겨우 벗어난 차는 고속도로에서 속력을 내며 동쪽으로 달렸다.

대도시의 세멘트수림을 떠나 산너머 흰구름이 넘실넘실 피여나는 푸른하늘 아래에 펼쳐진 록수청산과 산촌전야를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상쾌하고 몸도 거뿐해지는듯하다.

무순시를 지나서 남잡목(南杂木)갈림길에서 영릉방향으로 굽어들면서 차는 계속 고속으로 달렸다. 차창너머로 봄계절의 푸른산, 푸른강, 넓은 논밭들이 뒤로 밀리는데 한결 유정하게 안겨온다.

정오에야 환인현성에 도착하여 식당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환인공민들과 만났다.반갑게 구면초면의 공민들과 일일이 인사하고 서로들 소개하는데 모두들 순박하고 나이가 들어보인다. 멀리있는 자기들을 위하여 특별히 찾아온 본부일군들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연신인사를 하였다.

우리는 먼저 환인에서 살고있는 공민들이 생활상애로를 기탄없이 말할것을 제의하면서 그들의 상황을 주의깊게 듣고 기록하였다.

환인에서 살고있는 김찬수공민은 퇴직한지 20 년이 넘었는데 아직 의료보험이 해결되지 않아 병이 나면 몹시 고통스럽다면서 나이가 많으니 병도 자주난다고 애달프게 제 처지를 한탄하고 올해 78 세인 김숙제공민도 의료보험을 못하였다고 서럽다며 애처롭게 말하는데 내가 보기도 딱하고 가엾다.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 공민들도 의료보험을 해결받지 못하였다. 환인현에서는 의료보험을 하려면 중국은행카드가 있어야 하는데 은행에서 우리 조선공민에게는 은행카드개설을 취급해주지 않는다. 은행카드개설이 않되니 사회보장을 못받는 공민도 있고 또 은행카드가 있어도 은행의 시스템이 승급하여 퇴직금을 못받는 공민도 있다. 또한 농사를 짓는 두 공민은 농보를 해결받지 못하여 하염없이 한숨만 쉬였다.

동주봉국장이 일일이 그들의 생활상 존재하는 문제들을 기록하면서 본계시내에서 살고있는 우리공민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를 해결받았는데 본계시환인현에서 살고있는 공민들은 왜 해결을 못받는지 우리도 심양총령사관에 제출하겠으니 본인들도 끈질기게 해당기관을 찾아다녀보라고 타일러주기도 하고 다른 지방공민들이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해결받은 실례도 예기해주었다. 그러면서 방법을 강구하여 노력하면 해결받을수 있는데 절대 포기하면 안된다고 간곡히 당부하였다. 환인동아연광산(桓仁铜锌矿)에서 수십년을 일하고 정령퇴직한 조선공민들은 중국인들과 꼭 같이 중국의 사회주의건설에 한생을 바친 로동자들이며 중국공안부에서 발급한 외국인영구거류증을 소지하고 있어 응당 존경을 받아야 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국적이라고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는 심각히 고려해보아야 할 문제가 아닐수 없다.





모두들 사연이 많아 자연히 이야기가 길어져서 식사를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였다.어렵게 사는 그들에게 식사부담을 준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먹는 음식이 목에 걸린다. 우리 공민들이 이처럼 응당 받아야 할 대우를 받지 못하면서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위하여 중국의 법질서를 잘 지키면서 조선공민으로 꿋꿋이 살아가고있는 환인현 공민들의 문제해결을 갈망하는 표정들을 바라보며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젖어들었다.

우리는 본부에서 너무 늦게 찾아왔다고, 돌아가서 환인현 공민들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사실대로 총령사관에 반영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였다. 우리공민들은 오히려 본부일군들이 분망할것인데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여 먼길을 달려왔다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하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는 내조국 조선을 사랑한다면서 우리는 다만 우리가 응당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려는것 뿐이라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였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너무나도 응당하고 소박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중국말들을 아주 류창하게 구사하여 우리 말을 못하는가 생각하였는데 우리말도 능란하였다.

농보문제는 애쓰면 해결될 희망이 있어서 래일 함께 은행에 가서 해결을 받자고 약속하고 다른 분들도 래일점심에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려관에서 행장을 풀고 좀 쉬였다가 환인현성을 감돌아 흐르는 혼강가로 갔다. 길림성백산시에서 발원한 압록강의 지류인 900 리 혼강은 계곡을 따라 흐르는데 환인저수지를 거치면서 물매가 급하여 관개와 발전도 하면서 아름다운 풍경도 이루는데 맑은 강물을 왜서 혼강이라 부르는지 모르겠다. 산을 끼고 흐르는 맑은 혼강의 강폭이 넓은데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불어서인지 강가의 놀이터에 사람도 없어 한적하여 보인다. 환인현성의 건축물들은 높지 않는데 비가 많이 내려서인지 추녀가 넓어보인다. 거리는 가로세로 규격있게 짓고 야경도 멋있다. 길가의 조선식당을 찾아서 간단한 저녁식사를 하였다.

이튿날 아침 농사짓는 두 공민과 함께 차를 타고 현성에서 20 여리 떨어진 환인현아하조선족향에 있는 아하촌촌민위원회에 찾아가서 농보문제를 제출하였다. 촌민위원회에서는 문제가 없으니 아하향 은행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길건너 맞은켠의 크지않은 아하향은행에 사람들이 많아서 복잡한데 은행직원들이 례절있고 문명하고 친절하다. 우리 차례가 되여서 농보를 받지못하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외국인영구거류증과 려권을 유심히 살펴보더니 자기들도 이런 일은 처음이니 상급에 문의하여야한다고 하며 여러번 상급에 전화를 걸면서 또 우리에게 전후사정을 료해하였다. 우리가 본계시내에서 사는 우리 조선공민들은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해결받았다고 알려주었다. 다른 지방에서는 해결되는데 환인현 조선공민들도 해결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점심때가 다가오니 은행직원은 지금 상급의 지시를 기다리는 중이므로 오후에 본인이 다시 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먼 곳에서 왔는데 즉시 해결못해준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냥하게 웃는데 그윽한 동정의 눈길에 애를 쓰는 은행녀직원이 아주 인상적이였다.

아하조선족향거리에 조선글간판이 보이지않아 한족식당에서 환인공민들과 모여 농보해결을 위해 반나절을 은행에서 조률하던 과정을 상세히 알려주었다.식사를 하면서 서한의 내용과 해외동포권익옹호법을 비롯하여 조국의 정세를 공민들에게 이야기해주었다. 공민들은 국경이 열리면 그리운 조국을 방문하도록 방문단을 조직하여 줄것을 희망하였다. 환인에 오기가 쉽지를 않은데 왔던김에 오녀산성을 구경하라고 건의하였다.

오녀산성은 환인현성에서 10 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료녕성에서 제일큰 환인저수지와 잇닿아있다. 오녀산성의 크기는 남북 1500 메터,동서 300 메터이다. 성벽의 높이는 8 메터라고 한다. 고로봉식산성에는 저수지와 전망대도 있고 주위는 험한 절벽으로 되여 방어에 유리하였다. 이 산우에서 환인저수지와 환인현성이 한눈에 보인다고 한다. 유람을 즐기는 나였지만 환인공민들의 애로되는 문제들을 해결한 다음에 유쾌한 마음으로 다시 려행오겠다고 약속하였다. 스스럼없는 이야기로 시간이 퍼그나 흘러 환인공민들과 아쉬운 작별을 하고 차에 오르는데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 농보가 해결되였으니 빨리 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하는것이였다. 모두들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피였다.

지금 재중조선인총련합회는 조선공민들의 권익옹호자,대변자로서의 책임을 자각하고 동포제일주의를 지향시키는 문제를 재중총련의 제일 중요한 사업으로 틀어쥐고 해외동포들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총령사관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해결대책을 취하고있다.

심양으로 가는 차가 아하조선족향을 떠나 환인현성에 들어섰다. 공민들이 오래동안 해결하지 못해 고민하던 농보문제를 하루만에 해결하고 보니 마치 만선기를 날리며 포구로 돌아오는 어부마냥 하냥 즐거웠다.

보름달같이 환한 얼굴에 웃음섞인 청아한 목소리로 다정히 우리를 대해 주던 아하향은행의 그 젊은 녀직원의 예쁜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정말 고마운 녀직원이였다.다시 환인에 오면 꼭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다른 지방의 은행직원들 모두가 환인현 아하향은행녀직원처럼 상급의 규정을 지키면서 방법론을 찾으며 문제해결을 위해 애써준다면 우리 공민들의 애로는 얼마든지 풀수있지않을가 생각한다.

환인현성을 벗어난 차는 무심히 달린다. 길가의 수수한 산간마을과 논밭들이 아름다운 풍경처럼 정답게 보이는데 우리들의 생각은 또 다른 시, 현에 살고 있는 공민들의 애로를 어떻게 풀것인가 하는 고민속에 빠져들었다.



태양절에 즈음하여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경축공연 진행



위대한 당중앙의 령도따라 반만년민족사에 가장 영광스러운 시대, 전면적국가부흥의 새시대를 펼쳐가는 보람찬 려정에서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온 나라에 차넘치는 속에 제8차 4월의 봄 인민예술축전 참가자들의 경축공연이 15일 수도 평양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평양대극장, 봉화예술극장, 동평양대극장을 비롯한 경축공연장소들은 사회주의조선의 부강번영과 더불어 영원불멸할 태양절을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빛내이려는 인민의 뜨거운 열망으로 설레이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인 최룡해동지, 리병철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민들이 공연을 보았다.

공연무대들에는 우리 인민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심장으로 부르는 기념비적송가들 등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설화와 합창 《태양절 봄명절》, 남성독창과 합창 《잊지 못할 우리 수령님》, 합창과 무용 《내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설화와 노래 《수령님 만고풍상 못 잊습니다》, 《혁명가요련곡》 등에서 출연자들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만경대의 봄과 더불어 우리 인민이

받아안은 수령복과 천만년 빛날 조선의 영광, 민족의 대행운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반만년민족사에 처음으로 맞이한 불세출의 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조국번영의 일대 전성기를 펼쳐온 자랑스러운 년대들을 감회깊이 돌이켜보게 하는 명곡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강대하고 륭성번영하는 우리 국가의 위상과 더불어 후손만대에 길이 빛나는 절세위인들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최대의 애국유산인 우리식 사회주의를 새로운 변혁과 발전에로 줄기차게 향도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열렬히 칭송한 《**김정은**장군께 영광을》, 《우리 원수님》, 《그 정을 따르네》, 《그리움》을 비롯한 시대의 명곡들이 장내에 울리며 관람자들의 심금을 틀어잡았다.

우리 국가제일주의시대의 활기찬 전진과 약동하는 기상이 나래치는 녀성중창 《희망넘친 나의 조국아》, 합창과 무용 《흥하는 내 나라》, 녀성중창과 방창 《황금나무 능금나무 산에 심었소》, 극이야기 《결사관철은 우리의 생명》, 설화와 녀성 3중창 《창성땅의 새 노래》, 대중창이야기 《황철에 나래치는 신념의 불길》, 시와 합창 《전사의 념원》 등은 세대를 이어 빛내여온 사회주의 우리 집을 세상에 보란듯이 더 높이 떠올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숭고한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었다.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점령을 위해 떨쳐나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해주는 합창시 《만풍년의 승전고 높이 울리리》, 제창이야기 《다수확의 지름길》, 혼성 5중창 《땅과 농민》, 고음저대독주와 가무 《미루벌의 종다리》를 비롯한 종목들도 관람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였다.







우리 국가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모시였기에 모든 승리와 영광은 우리의것이라는 철리를 새겨주며 공연무대에 녀성중창《행복의 래일》, 합창과 무용《우리를 부러워하라》, 민족기악병창《오늘의 창성》, 북제창 《전진하는 사회주의》, 이야기와 북춤 《상원전역에 울리는 신념의 노래》, 합창시와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의 종목들이 올랐다.

요술배우들과 요술애호가들이 펼친 환상요술 《애국의 마음》,《새집들이경사》, 일반요술《절약은 증산》, 기능 및 환상요술 《주패재주와 탈출》 등도 관람자들에게 기쁨과 랑만, 웃음을 안겨주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거룩하신 한생이 응축되여있는 혁명유산이 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기에 우리식 사회주의는 영원히 필승불패할것이라는 철리를 예술적화폭으로 감명깊게 펼쳐보인 경축공연은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봄철나무심기가 군중적으로 활발히 전개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할데 대한 당의 뜻을 받들고 공화국각지에서 봄철나무심기가 군중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봄철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억그루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많은 시, 군들에서 봄철나무심기계획을 끝내는 성과를 이룩하였다.

평양시에서 봄철나무심기가 계획대로 추진되였다.

지난해 인민의 새 거리가 일떠설 화성지구에 몸소 두그루의 전나무를 심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애국의 뜻을 새기고 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적극 떨쳐나섰다.



그들은 수도를 더욱 풍치수려하게 꾸려갈 한마음으로 창성이깔나무, 잣나무, 밤나무 등을 주변산들에 심었다. 뿐만아니라 느티나무를 포함하여 갖가지 수종의 나무를 공원, 유원지를 비롯한 시내의 여러곳에 심어 수도의 풍치를 돋굴수 있게 하였다.

황해남도에서도 봄철나무심기로 끓어번지였다.

도의 일군들은 조림대상지선정을 구체적으로 한데 기초하여 구뎅이파기와 부식토깔기, 물주기 등 공정별작업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도록 요구성을 높이였다.

해주시를 비롯한 시, 군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름률을 높일수 있게 최적기에 나무심기를 진행할 목표를 세우고 적극 떨쳐나섰다. 그리하여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많은 나무를 더 심는 성과가 이룩되였다.

남포시에서도 단계별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로력조직과 나무모보장을 실속있게 하면서 느티나무, 참대버드나무, 잣나무 등 많은 나무를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정성껏 심었다.

자기 고장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을 옳게 정하고 지력을 높이는데 힘을 집중한 개성시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학적인 나무모생산방법을 받아들이고 비배관리를 기술적요구대로 하여 나무모들을 튼튼히 자래웠다.

시에서는 수종별에 따르는 생물학적특성과 지역의 기후, 토양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가며 나무심기의 질적수준을 철저히 보장하는 한편 심은 나무의 사름률을 높일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나갔다.

봄철나무심기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하고 분발해나선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나무심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메탄가스를 리용하니 정말 좋습니다》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무안목장을 찾아서

덕천시소재지로부터 구장리로 향한 길을 따라 얼마간 가느라면 나지막한 산기슭에 자리잡은 아담한 건물이 나진다.

승리자동차종합기업소 무안목장이다.

휴양소를 방불케 하는 이 목장에서 우리가 받은 감흥은 자못 컸다. 모든것이 어렵고 부족한 속에서도 종합기업소로동자들에게 축산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고있는 사실도 그러했지만 그보다 더욱 인상깊은것은 메탄가스를 적극 리용할데 대한 당정책관철을 위해 애쓰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의 모습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메탄가스나 연재, 초무연탄을 가지고 땔감문제를 해결한데도 있는데 이런 단위들의 경험을 적극 일반화하여 모든 지역들에서 어떻게 하나 땔감문제를 자체로 해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목장에 도착한 우리가 책임기사 김철호동무의 안내를 받으며 먼저 들린 곳은 메탄가스생산장이였다. 이곳에는 두개의 발효탕크가 갖추어져있었는데 거기에서 수백㎥의 메탄가스가 생산되고있었다.

《우리 목장에서는 경영활동뿐 아니라 종업원들의 생활보장에 메탄가스를 적극 리용하고 있는데 실리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책임기사는 이렇게 말하며 메탄가스생산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었다.

목장에서는 하루에만도 여러 t 의 집짐승배설물이 생기는데 이것이 메탄가스발효탕크로 자연적으로 흘러든다고 한다. 그것은 온도가 20~30℃ 되는 탕크에서 메탄가스로 전환되여 취사용연료와 축사난방보장 등에 리용되고있었다.

이윽고 우리는 메탄가스로 매일 종업원들의 식사를 보장하고있다는 식당으로 걸음을 옮겼다. 취사원은 우리에게 메탄가스곤로로 음식을 하니 식당일이 간편하다고, 식탁들에도 곤로가 설치되여있어 종업원들이 구미에 맞게 음식을 끓여먹을수도 있다고 자랑삼아 이야기하였다.

메탄가스에 대한 자랑은 아담하게 꾸려진 축사에서도 들을수 있었다.

목장에서는 메탄가스로 수백㎡ 되는 돼지우리의 난방을 보장하고있었는데 아직은 초봄이여서 밖의 날씨는 쌀쌀하였지만 우리안은 훈훈했다. 한겨울에도 항상 알맞춤한 온도가 보장되니 집짐승들이 피둥피둥 살이 진다고 사양공은 말했다.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목장에서 보는 덕은 이뿐이 아니였다.

부루와 쑥갓, 오이 등 맛좋고 신선한 여러가지 남새가 키돋움하며 자라고있는 온실에서 한 종업원은 메탄가스를 생산하고 남은 찌끼는 자연적으로 오수정화장으로 흘러가는데 그것은 보통방법으로 발효시킨 두엄보다 질이 훨씬 좋다고, 조금만 밭에 내도 땅이 걸어지고 작물의 수확고도 뛰여오른다고 신바람나서 이야기했다.

발전기실에서 들은 메탄가스자랑은 또 어떠했던가. 목장에서는 발동발전기의 시동에 휘발유를 전혀 쓰지 않고 메탄가스를 직접 공급하

는 방법으로 수십kWh의 전력을 생산하여 경영활동에 리용하고있었다.

이렇게 석탄을 쓰지 않고 집짐승의 배설물로 메탄가스를 생산하여 전기와 열을 얻을뿐 아니라 그 찌끼는 그대로 질좋은 유기질비료로 리용하고 환경오염도 막으니 이것이야말로 일거다득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책임기사에게서 김책공업종합대학 열공학부 교원, 연구사들의 적극적인 방조를 받으며 완성한 메탄가스생산공정을 정상운영하기 위해 기울인 피타는 노력에 대해서도 들을수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서 메탄가스를 정상적으로 생산하는것은 단순한 기술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이 종합기업소로동자들에게 더 뜨겁게 가닿게 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였다.

여섯해전 11월 종합기업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인것만큼 로동자들에 대한 후방공급사업에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훌륭한 목장을 새로 건설할데 대한 은정깊은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그 사랑속에 일떠선 목장에 메탄가스화를 실현하기 위해 종합기업소의 책임일군들부터가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매일과 같이 메탄가스와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극 풀어주었다. 언제인가 메탄가스와 관련한 과학기술도서들을 가슴벌게 안고 한밤중에 달려왔던 한 책임일군의 모습은 목장종업원들의 가슴속에 지금도 소중히 자리잡고있었다.

목장의 일군들도 분발해나섰다. 때로는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찾아가 방조를 받으며 겨울철에도 메탄가스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을 해결했다. 이렇듯 시작한 일은 끝장을 볼 때까지 일관성있게 내미는 일본새가 낳은 축산기지의 메탄가스자랑이였다.

지금도 목장으로는 그들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많은 단위에서 찾아오고있다.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매일이다싶이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얻은 실천적경험을 배워주는 한편 여러 단위에 나가 메탄가스생산공정을 꾸리는 사업도 책임적으로 도와주고있었다.

메탄가스덕에 목장이 온 나라에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우리와 만난 종업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메탄가스를 리용하니 정말 좋습니다.》

이 목소리에는 당정책을 끝까지 뼈심을 들여 이악하게 집행하여 더 훌륭한 결실을 안아오려는 불같은 맹세가 어려있었다.



우리식 사회주의건설의 거창한 변혁의 시대를 상징하는 또 하나의 대기념비, 인민의 새 거리가 솟아난 화성지구에 새집들이경사가 났다.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에 넘치는 복받은 인민의 기쁨

화성거리에서 새집들이 시작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화성지구 1단계 1만세대 살림집 준공식에 참석하시여 몸소 준공테프를 끊으시고 새집에 입사하는

근로자들이 자자손손 행복하며 화목하고 보람넘친 생활을 누려가기를 축복해주시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이 세상 만복을 다 안겨주시려는 위대한 어버이의 사랑이 응축된 사회주의번화가로 21 일부터 이사짐을 실은 차행렬이 줄지어 들어섰다.

당과 국가가 무상으로 안겨준 현대적인 살림집에 새 보금자리를 펴게 된 근로자들을 평양시 5 만세대 살림집건설지휘부 일군들과 건설에 참가한 인민군부대 지휘관들, 수도의 당 및 정권기관 일군들, 군민건설자들이 열렬히 축하해주었다.

뜻깊은 4 월의 봄계절과 더불어 새집들이기쁨이 넘쳐나는 거리의 곳곳에 흥겨운 춤판이 펼쳐지고 공화국기가 나붓기는 집집의 창가들에서는 어머니당에 대한 고마움에 목메여 주민들이 터치는 감격의 목소리가 끝없이 울려나왔다.



화성구역 화성 2 동 41 인민반 3 층 3 호에 입사한 중구역상하수도관리소 로동자 서경훈은 어제 당의 은정어린 살림집리용허가증을 받아안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진정을 터놓았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꽃펴나는 새집들이경사가 우리 가정에도 꿈만같이 펼쳐졌다.

신문과 TV 화면에서 보아오던 이런 희한한 살림집이 내 집이라는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다.

정말이지 우리 원수님의 은덕이 너무도 크고 고마와 기쁨보다 눈물이 먼저 앞선다.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우리 원수님께 큰절을 올리고싶다.

화성구역 금릉 1 동의 새집을 받아안은 김기호로인은 전쟁로병들을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우리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해같은 사랑속에 희한한 새 살림집에 보금자리를 펴니 10 년, 20 년은 더 젊어지는것 같다고 하면서 로쇠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 우리 제도를 받드는 길에서 전승세대의 본분을 다해갈 심정을 토로하였다.

화성거리의 상징건물인 40 층살림집에 입사한 평양시대흥관리국 로동자 장철민은 창밖으로 안겨오는 웅장한 새 거리의 장관에서 눈을 뗄수 없다고 하면서 지난해 송화거리에 입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였는데 우리 당이 마련해준 행복의 절정에 오늘은 우리 가정도 올랐다고 격정에 넘쳐 말하였다.

화성구역 화성 3 동 75 인민반 3 층 4 호에 새 살림을 편 맹정민, 리금향부부의 마음도 다를바 없었다.

우리같은 평범한 로동자들이 리상으로 그려보던 현대적인 살림집을 무상으로 받아안고보니 당의 은덕에 어떻게 보답하였으면 좋을지 모르겠다.

정말 우리 당이 제일이고 인민이 주인된 내 나라가 세상에서 제일이다.

우리 원수님만 믿고 따르면 남부러운것없이 잘살게 된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오늘의 이 행복을 한생토록 간직하고 일편단심 우리 당을 받들어 충성과 애국의 한길만을 걷겠다.

락랑구역 혁신고급중학교 교원 홍철옥은 새 거리에 들어서니 당의 령도밑에 부흥번영할 조국과 후대들의 래일이 한눈에 다 보이는것만 같다고 하면서 새집들이소감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화성지구의 천지개벽은 근로자들의 복리를 최우선시하는 당과 국가의 인민적정책이 안아온 위대한 현실이다.

사회주의 내 조국이 얼마나 소중한 삶의 요람인가를 더욱 깊이 새겨안고 후대교육사업에 전심전력하겠다.

대성구역 룡흥 2 동에 살던 인민군대후방가족인 김광성은 자식들에게 훌륭한 집을 물려주고싶은 부모들의 소원을 고마운 우리 당이 풀어주었다고 하면서 화성거리의 새집을 받아안은 꿈같은 이 소식이 전해지면 아들이 지켜선 조국보위초소에도 기쁨이 넘쳐날것이라고 흥분된 심정을 터치였다.

화성구역 금릉 1 동 41 인민반 3 층 3 호에 입사한 전복남은 나라에서는 우리 제대군관들의 생활조건보장과 관련한 법을 내오고 자그마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세심히 보살펴주고있으며 오늘은 또 현대적인 새 살림집을 선참으로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감격을 금치 못하였다.

그는 총대로 우리 당을 옹위하고 혁명을 보위하던 그 시절처럼 마음의 군복을 벗지 않고 고마운 우리 당, 우리 국가를 빛내이는 영예로운 복무의 길을 변함없이 이어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새집들이로 설레이는 어느 집을 찾아가도, 어디를 가보아도 어머니 우리 당에 대한 인민의 다함없는 고마움과 보답의 일념이 격정의 바다가 되여 흐르는 사회주의문명의 리상향이였다.

화성거리에 넘쳐나는 복받은 근로자들과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인민의 기쁨속에서 혁명하는 보람을 찾으시며 위민헌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사회주의대가정의 어버이로 높이 모시여 더욱더 문명부강해질 내 조국의 창창한 래일을 그려주고있다.



발관개체계를 완비하는데 큰 힘을 집중

공화국의 각지 농촌들에서 발관개체계를 완비하는데 큰 힘을 넣고있다.

황해남도에서 발관개용양수기와 수지관생산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해당기업소에 수지관생산공정을 새로 꾸려놓고 짧은 기간에 필요한 량을 만들수 있도록 그 실행을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하였다. 시, 군들에서 양수기생산이 본때있게 추진되고있다.

배천군, 벽성군, 청단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기술자, 기능공들을 불러일으켜 발관개용양수기생산을 일정대로 내밀고있다. 현재 도적으로 수십km의 수지관과 수백대의 양수기가 생산되였으며 관늘이기공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평안북도에서 발관개체계를 완비하는데 필요한 시설건설과 설비생산이 박력있게 진척되고있다. 도의 책임일군들은 현지를 직접 밟으며 관개공사를 새로 진행할 대상들을 확정하고 능

력있는 일군들로 강력한 지휘력량을 꾸려주었다. 그리고 수송조직을 빈틈없이 하여 필요한 자재들이 공사에 지장없이 보장되게 하고있다. 시, 군들에서 양수장건설과 양수기생산실적이 오르고있다.

남포시에서는 본보기를 창조하고 좋은 경험을 일반화하는 사업을 중시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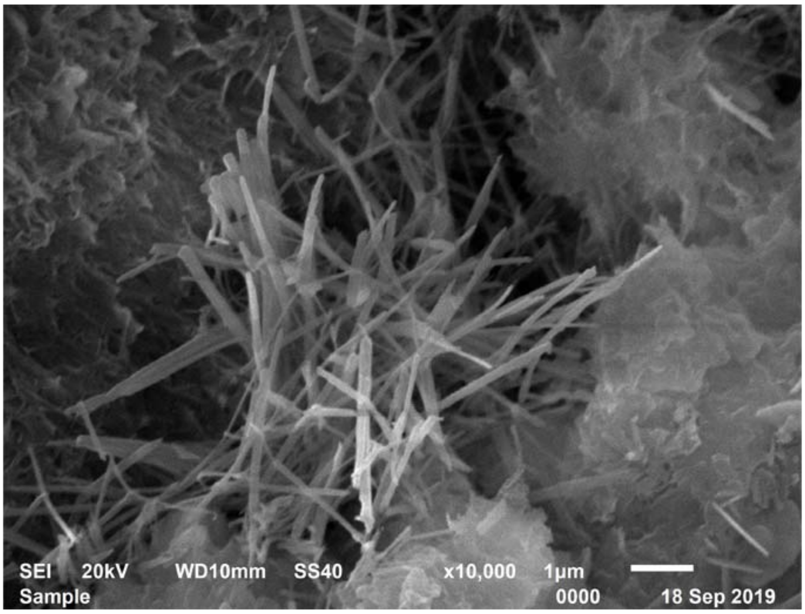


이를 위해 항구구역 우산리, 룡강군 옥도리의 수십정보 밭에 대한 관개공사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본보기가 될수 있게 그 실행을 위한 조직사업을 구체적으로 하였다. 로력과 자재, 설비보장대책을 치밀하게 세워 발관개공사가 계획대로 진척되게 하고있다.

시의 일군들은 공사장에 자주 나와 제기되는 문제들을 알아보고 적시적으로 풀어주고있다. 발관개공사에 참가한 근로자들은 조건이 매우 불리하지만 맡은 과제를 책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평안남도, 황해북도를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농업생산의 오늘과 래일을 다같이 담보할 수 있는 관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 뚜렷한 목표밑에 추진되고있다.

성능높은 콩크리트방수제 개발



미래산업기술연구소 소장 최성일, 실장 리남철선생들을 비롯한 연구집단이 자체의 기술로 개발한 성능높은 콩크리트방수제인 다가카르본산계 고성능침투결정형방수제가 록색건재공업에서 커다란 은을 내고있다.

재색의 가루로 된 이 방수제에 적당한 량의 물을 섞은 다음 콩크리트미장면에 바르면 이틀후부터 방수효과가 나타나는데 특이한것은 콩크리트의 수명과 함께 공존하는 독특한 방수성질이다. 이 방수제는 100mm 까지 침투하여 침상결정을 성장시켜 견고한 방수구역을 형성한다.

우리민족한마당

womenminzudajiating

폭발전야에 이른 조선반도정세의 근원을 론함

조선반도정세가 통제불능의 위험천만한 상황에로 각일각 치닫고있다.

전쟁발발의 림계점에 이른 핵대국들의 팽팽한 대치를 세계가 심각한 우려속에 주시하고있다.

이 엄중한 사태는 전적으로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분별하고 횡포한 반공화국압살광기로 하여 빚어진것이다.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우리 공화국은 올해 정초부터 경제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발전과 진전을 이룩하려는 일념으로부터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적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모든 힘을 집중하여왔다.

그러나 미국을 위수로 하는 적대세력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우리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리익을 란폭하게 침해하는 우려스러운 적대행위들에 집요하게 매달리고있으며 그 엄중성과 위험성은 더이상 용납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있다.

지난 1 월 괴뢰지역에 기여든 미국방장관은 우리 국가에 대한 핵무기사용기도를 꺼리낌없이 드러내면서 5 세대스텔스전투기들과 항공모함과 같은 전략자산들을 더 많이 전개할것이라고 력설하였으며 동족대결에 환장이 된 윤석열괴뢰역도도 지하방공호에 들어가 《대비태세확립》, 《응징》에 대해 떠벌이였다.

허세와 객기에 열이 뜬 호전광들은 올해 전반기에 과거 《독수리》합동군사연습수준이상의 강도높은 합동군사연습을 무려 20 여차나 벌릴것이라고 공표하고 우리에 대한 침투 및 전략적시설과 주요핵심표적에 대한 합동타격훈련 등 화약내나는 북침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렸다.

확장억제력의 상시주둔을 운운한대로 미국은 2 월에 들어와 괴뢰지역에 《B-1B》 핵전략폭격기, 《F-22》, 《F-35B》 등 스텔스전투기를 비롯하여 핵심 공중전략무기들을 투입하여 괴뢰들과 조선서해상공에서 우리를 겨냥한 수차례의 련합공중훈련을 감행하였다.

특히 미제는 지난 2 월하순 괴뢰들을 미국에 끌어들여 우리에 대한 핵선제공격을 기정사실화한 《확장억제운용연습》이란것을 벌려놓고 앞으로도 조선반도에 핵전략자산들을 항시적으로 전개할것이라고 떠들었다.

이런 무분별한 군사적대결망동과 적대행위들은 3 월에 들어와 조선반도지역정세를 폭발직전의 위험계선에로 몰아갔다.

미국은 우리에 대한 군사적압박을 가증할 흉심밑에 미해군의 주요전략자산인 핵잠수함, 이지스구축함들을 련속 괴뢰지역에 급파하였다.

지난 1 일 미해군의 최신형미싸일추적함 《하워드 로렌젠 》 호를 조선동해에 끌어다놓고 《RC-135S》를 비롯한 정찰자산들로 정탐행위를 감행하던 미국과 괴뢰호전광들은 3 일 전략폭격기 《B-1B》와 《하늘의 암살자》로 악명떨치는 무인전투공격기 《MQ-9 리퍼》 등 각종 전략장비들을 동원한 련합공중훈련을 조선서해상공에서 올해 네번째로 벌려놓았다.

한편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은 상전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거점들에 대한 기습타격을 노린 《참수작전》이 벌어지는 특수작전

훈련장, 전선린근지대의 괴뢰군부대들을 돌아치면서 《적도발은 이미 시작됐다.》느니, 《응징할것》이라느니 하며 극도의 대결광기를 고취하였다.

조선반도와 지역의 군사정치정세가 더욱 위태로와진 엄중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6일 또다시 핵전략폭격기 《B-52》를 출동시켜 다섯번째로 되는 련합공중훈련을 벌려놓은데 이어 13일부터는 대규모 미국남조선합동군사연습 《프리덤 쉴드》를 강행해나섰다.

현실은 조선반도에서의 핵전쟁발발위험이 가상적인 단계로부터 실천적인 단계에로 이행하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괴뢰들과 야합하여 벌리고있는 모든 군사연습들은 우리와의 전면전쟁을 가상한 도발적인 북침실동연습, 핵예비전쟁이라는데 그 엄중성이 있다.

《평양점령》을 노린 《쌍룡》련합상륙훈련만 놓고보아도 5년동안 중지되였던것을 부활시켰을뿐 아니라 그 규모와 범위도 력대 최대수준에서 벌릴것이라고 내놓고 떠들어대고있다.

미제가 저들의 전쟁연습들에 《방어》의 외피를 씌우고있지만 그것은 흑백을 전도한 파렴치한 궤변이다.

지난해는 물론 올해에도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에 때없이 끌어들이고있는 핵전략폭격기 《B-52H》와 초음속전략폭격기 《B-1B》, 핵항공모함과 핵공격잠수함, 《F-35》스텔스전투기들이 방어적목적이 아니라 순수 전략적타격임무를 수행하는 가장 공격적인 군사장비들이라는것은 미국도 부인하지 못할것이다.

조선반도에 대한 미핵전략자산들의 항시적인 전개와 《정권종말》, 《참수작전》, 《평양점령》을 목표로 한 전쟁각본들에 따라 감행되는 특수부대의 강하침투훈련과 기습상륙 및 진격훈련 같은것들이 《방어》적인것이라고 믿을 사람은 세상에 없다.

지금 적대세력들은 위험천만한 군사적모험에 매달리는 한편 그 무슨 《인권문제》까지 걸고들면서 반인륜적이고 불법무도한 제재책동으로 우리 공화국을 고립압살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무대들에서 공화국을 《악마화》하기 위하여 온갖 《위협》설을 꾸며대고 퍼뜨리고있으며 우리 인민들의 일상생활에 절실한 물품들에 《사치품》과 같은 황당한 딱지를 붙여 우리 경내에 단 한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비렬하게 놀아대고있다.

핵문제를 가지고는 더이상 우리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가 힘들게 되자 미국은 오합지졸의 추종세력들을 긁어모아 국제무대에서 반공화국모략책동에 매여달리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으로 인한 부정적영향은 결코 조선반도에만 국한되고있지 않다.

지금 미국은 지역의 군사전략적패권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디아태평양전략》리행의 간판밑에 괴뢰들과 일본의 우려스러운 군비증강행위를 극구 부추기면서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군사적균형을 미국주도의 동맹체제에 유리하게 전환시키려고 각방으로 책동하고있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아시아판 나토》와 같은 새로운 군사쁠럭을 수립하는데 골몰하면서 《오커스》 등 추종국가들의 군사력을 포괄하는 《통합억제력》을 구축함으로써 지역대국들에 대한 포위망을 형성하고 부단히 고립약화시켜 저들의 패권적목적을 달성하려 하고있다.

괴뢰들의 《고위력탄도미싸일》개발도입, 군사정찰위성발사와 핵잠수함보유기도, 일본의 《적기지공격능력》확보를 위한 《토마호크》순항미싸일도입과 극초음속미싸일개발책동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군비증강움직임이 허용할수 없는 위험계선을 넘어서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반도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군사적팽창책동으로 말미암아 세계최대의 화약고, 전쟁연습터로 전변되고있다.

분렬과 대결을 부추기고 안정과 발전을 저애하는 미국의 패권추구로 지역의 안보환경이 위태로와지고 국제적인 평화와 안전의 근간도 심히 흔들리고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리유가 있기마련이다.

국제사회가 정확히 평가하듯이 조선반도정세가 오늘의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미국이 우리 국가가 취한 긍정적조치에 호응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조선압박과 무력에 의한 위협을 계속 강화한데 있다.

올해에만도 우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주권국가의 《정권종말》과 같은 비현실적이고 매우 위

험한 목표를 설정하고 각종 위협적인 수사학적 표현까지 동원하며 지역정세를 악화시키고있는 미국과 괴뢰들의 빈번한 련합훈련들이야말로 조선반도에서 정세악순환을 지속시키는 원인이라는데 대하여 명백히 밝혔으며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군사적적대행위를 지체없이 중지할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를 거듭 무시하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의 정세를 더이상 수수방관할수 없는 극한점으로 몰아가고있다.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 더는 용납하지 못할 수준까지 위협당하고있는 엄중한 사태발전에 대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적대세력들의 군사적위협을 철저히 제압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하고 결정적인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되였다.

우리의 핵무력은 결코 광고하기 위해 존재하는것이 아니다.

국가보위의 성스러운 사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사용될수 있으며 위험하게 확전되는 충돌이 일어난다면 전략적기도에 따라 임의의 시각에 선제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것이다.

이번에 진행된 대륙간탄도미싸일 《화성포-17》형발사훈련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시사이다.

우리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책동을 계속 압도적인 힘으로 제압해나갈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법령에는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가해지는 외부의 군사적위협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각이한 정황에서의 핵무기사용원칙과 조건들이 명백히 규정되여있다.

그 누구든지 공화국의 자주권과 안전을 침해하려 한다면 우리 핵무력은 자기의 중대한 사명에 림할것이다.

만일 미국과 남조선의 위험천만한 군사적도발움직임이 지금처럼 계속 방관시된다면 쌍방의 방대한 무력이 첨예하게 밀집대치되여있는 조선반도지역에서 격렬한 물리적충돌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러한 충돌이 현실로 되는 경우 지역의 안정은 물론 미국의 안보위기도 걷잡을수 없는 파국적인 국면에 놓이게 될것이다.

미국은 우리를 반대하는 무모한 군사적도발과 전쟁연습을 당장 중지하여야 한다. 론평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탄생 111 돐을 맞으며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주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 억 6730 만￥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련에 보내시였다.

투쟁의 거리에서 우리도 함께 웨친다

고 영　재일동포

전쟁광, 친일역적, 검찰독재자 윤석열역도를 규탄하는 대규모집회와 시위들이 남조선전역을 세차게 휩쓸고있다.

3월 25일 서울에서만도 수많은 시민, 사회단체 각계층 군중이 끓어오르는 분노를 안고 《윤석열〈정부〉의 망국외교 및 강제동원굴욕해법을 규탄하는 범국민대회》, 《민생파탄, 검찰독재, 윤석열심판! 민주로총투쟁결의대회》, 《32차 윤석열퇴진! 김건희 특검! 초불대행진》등 역도를 반대하는 대규모집회와 시위투쟁을 벌리였다.

한계를 넘은 윤석열역도의 반공화국전쟁소동과 대일굴종외교, 파쑈공안탄압이 거리와 거리들을 분노의 파도로 끓게 하고있다.

집회들에서는 윤석열역도의 죄행을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들이 힘차게 터져나왔다.

《민생파탄, 전쟁위기 몰아오는 윤석열퇴진하라!》, 《핵전쟁을 부르는 〈한〉미련합전쟁연습 중단하라!》, 《민주파괴, 검찰독재 윤석열을 타도하자!》, 《망국외교, 로동탄압 윤석열〈정권〉심판하자》,《윤석열〈정권〉 끝장내고 새로운 세상 열어내자》, 《친일매국, 사대정당 〈국민의 힘〉 해체하라!》…

《전쟁을 불러오는 미국의 돌격대 윤석열〈정권〉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길수 없다.》, 《윤석열은 일본정부와 우익에게 보여준 성의의 1/100도 우리 〈국민〉에게 보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외교실패를 덮기 위해 〈국민〉과 피해자들을 걸림돌취급하고있다.》, 《로동시간과 비정규직을 늘여 재벌의 배를 불리고 로동자들의 권리를 빼앗아 노예로동시대로 되돌려세우며 민주주의를 짓밟고 검찰독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겠다는것이다.》…

투쟁의 거리에서 힘차게 울려나오는 단죄규탄의 웨침들은 파쑈폭압과 반인민적악정, 동족대결과 외세추종을 일삼는 윤석열역도에 대한 각계각층 남조선민중의 피젖은 저주와 분노의 표출인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을수 있으랴.

《〈국민〉지지가 1%로 추락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일관계를 정상화하겠다.》고 뇌까린 윤석열역도의 망발은 《제2의 리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공시키겠다.》고 줴친 박정희역도와 한바리에 실어도 조금도 기울지 않는다.

우리의 민족운동은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우리의 민족운동은 인간의 본질적 속성에 맞는 아주 자연스러운 운동입니다.



김현환 (자주사상연구소 소장)

김일성주석님을 비롯한 항일혁명1세대들은 산속에서 항일혁명투쟁을 하면서 믿을 것이라고는 인간, 동지들밖에 없다는 철의 진리를 발견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일들을 이들 항일혁명1세대들은 단결하여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생생한 력사적 사실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일성**주석님은 이러한 생생한 경험에 근거하여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를 처음으로 창시하시었습니다.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의 인간의 <자주적 지위>와 자연과 사회의 개조자로서의 인간의 <창조적 역할>을 중심으로 세계를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 바로 주체사상의 <세계관>입니다.

<자주성>은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으로 살며 발전하려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창조성>은 목적의식적으로 세계를 개조하고 자기 운명을 개척해나가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의식성>은 세계와 자기자신을 파악하고 개변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규제하는 사회적 인간의 속성입니다.

주체사상은 인간을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전 존재>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인간중심>의 주체사상으로 인간이 교양되어 하나로 뭉칠 때 세상에서 못해낼 일이 없다는 것이 바로 혁명1세대들이 보여준 조선의 혁명전통입니다. 조선의 계승은 바로 이러한 주체사상의 계승, 혁명전통의 계승을 의미합니다. 조선에서의 <혈통의 계승>이란 바로 이러한 사상의 혈통, 혁명전통의 혈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질만능의 이남의 자본주의 사회에서가 아니라, **김일성**주석님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으로 새로운 인간들로 변화된 조선의 주체사회주의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무기가 아닌 <사상>으로, 물질, 자본이 아닌 <자주적인 사상>으로 인간을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켜 조선은 세계를 자주화하고, 분단된 조국을 통일시키고, 사회주의 조선을 문명강국으로 건설할 것입니다. 민중의 <혁명적 열의>와 <창조적 적극성>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결국 <자주적인 사상>의 힘입니다. 자주적인 사상의 힘으로 조선의 민중과 군대의 <정신력>을 총발동시킨다면 세상에 못해낼 것이 없다고 봅니다.



인민음악가 정률성 기념관 신관 개관

3 월 20 일, 자리를 옮겨 재건하는 인민음악가 정률성 기념관 신관이 정식 개관했다. 할빈시문화광전과 관광국 당조서기, 국장 왕홍신이 개관의식을 사회하고 할빈시위 상무위원, 부시장 란지성이 축사를 했으며 정률성의 딸인 정소제녀사가 감사의 인사를 하고 할빈시인대상무위원회 주임 손철 등 령도들이 정률성 기념관 신관 제막을 했다.

2009 년 7 월 25 일, 인민음악가 정률성 기념관은 할빈시 우의로 233 번지에 락성하고 대외로 개방하여 음악도시-할빈의 특색 명함장으로 되였다. 13 년이 지나 기념관은 할빈시 도리구 안승가 85 번지에 자리잡은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으로 이전해 재건에 착수했다.

신관은 상, 하 두 층으로 되였고 전시청 면적은 1016 평방미터에 달하며 300 여점의 전시품을 진렬했다. 전시는 '혁명을 노래', '연안을 노래', '항전승리를 노래', '시대의 음악가', '선률속에서 영생' 등 5 개부분으로 구성, 시간 단서에 따라 혁명사업에 충성하고 음악창작에 일생을 몰두한 위대한 인민음악가 정률성의 62 년의 빛나는 인생려정을 조명했다.

신관 개관을 경축하기 위해 20 일 저녁 19 시, 중공 할빈시위 선전부, 할빈시문화광전과 관광국에서 주최하고 할빈교향악단,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에서 주관한 '태양을 향하여'-정률성 작품교향합창음악회가 할빈음악청에서 열렸다. 정률성의 딸인 정소제녀사 및 가족과 할빈시의 관련 령도들이 공동으로 공연을 관람했다. 신관 개관과 동시에 디지털 VR 전경 전시청도 가동되여 관중들이 인민음악가 정률성 기념관 위챗계정과 할빈시조선민족예술관 디디털문화관 플랫폼을 접속해 온라인으로 전시를 관람할수 있다. 박천룡 /흑룡강신문





동북항일련군 영렬 사진전람 및 사적보고회, 환인현조선족학교서

[본사소식 윤청 기자] 4 월 4 일, 료녕성조선족련의회와 료동항전연구센터는 청명절을 맞아 환인만족자치현조선족학교에서 동북항일련군 영렬 사진전람 및 사적보고회 활동을 진행했다.

사진전람에는 료동항전연구센터 관계자들이 준비한 양정우, 리홍광, 량세봉 등 항일 영웅, 렬사들의 30 여점 사진과 사적 기록물이 전시돼 사생들에게 항일의 력사를 생생히 전달했다.

항일영렬사적보고회에서는 료동항전연구센



터 상무부주임 소우춘이 중공만주성위 군위서기 양림에 관한 보고를, 료동항전연구센터 비서장 우종렬이 동북인민혁명군 제 1 군 참모장 겸 제 1 사 이였던 리홍광에 관한 보고를, 료동항전연구센터 주임 장홍군이 료녕민중자위군 총사령 당취오의 사적을 보고했다.

리홍광 료녕성조선족련의회 회장은 총화발언에서 항일선렬들의 '천하흥망, 필부유책'의 애국정신, 죽음에도 굴하지 않는 민족절개, 강적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영웅기백, '백절불굴, 견인불발'의 필승신념 등 항일정신을 따라배울 것을 호소했다.

보고회가 끝난 후 참가자들은 환인현 환인진 동관촌에 위치한 홍색관광 국가급 중점기지인 동북의용군기념관을 참관했다.

료녕성조선족련의회, 료동항전연구센터, 본계시조선족련의회, 환인현조선족련의회, 신빈현조선족련의회, 청원현조선족련의회의 책임자와 환인현조선족학교의 당원과 학생대표 등 백여명이 이날 행사에 참가했다.



철령시은주구조선족소학교, 청명절 맞아 추모활동 진행

4 월 3 일, 철령시은주구조선족소학교는 청명절을 맞아 철령시조선족련의회, 철령시조선족중학교 초중부와 함께 중국인민해방군 원 166 사 혁명렬사기념비를 찾아 추모활동을 가졌다.

장엄한 분위기 속에서 학생대표가 기념비에 꽃바구니를 진정하고 사회인사와 사생들은 묵념으로 선렬들에 대한 심심한 애도를 표했다.

장은정 학생은 대표발언에서 "혁명렬사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중국꿈을 실현하는 데 작은 힘을 이바지하겠다"며 결의를 다졌고 영웅중대대표 리민호 학생은 리홍광영웅사적을 소개했다. 추모식에 이어 소선대입대식도 진행됐다.

김응준



국가급 렬사기념시설 277곳, 연변 2곳

렬사들을 추모하는 청명이 곧 다가온다. 현재 우리 나라는 이미 제6진 국가급 렬사기념시설 명단을 공포했는데 총 277곳이다.

그중 료녕성에 본계렬사릉원, 뢰봉기념관, 료심전역렬사릉원, 탑산저격전렬사릉원, 해방금주렬사릉원, 항미원조렬사릉원 등 6곳이 있고 길림성에 양정우렬사릉원, 사평시렬사릉원, 백성렬사릉원, 돈화렬사릉원, '사보림강' 렬사릉원, 연변렬사릉원, 길림시혁명렬사릉원, 장춘렬사릉원, 매하구렬사릉원 등 9곳이 있으며 흑룡강성에 '팔녀투강' 렬사군조, 탕원렬사릉원, 서만렬사릉원, 양자영렬사릉원, 상지렬사릉원, 진보도혁명렬사릉원, 할빈렬사릉원, 쌍압산렬사릉원, 가목사렬사릉원, 요하항일유격대기념비 등 10곳이 있다.

그리움은 산과 강을 넘나들고 우리의 기억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다.

가슴 뭉클! 한가족 7명 항미원조 참가, 6명 희생…

큰 아들이 조선전장에서 희생된 후 그의 어머니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아들과의 '재회'를 기다렸으나 끝내 기다리지 못하고 "높은 산을 넘고 두만강을 건너 아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다…

이제 전쟁에 참가한 큰아들이 '돌아왔다'. "어머님, 시름 놓으세요, 시름 놓으세요."

조선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들은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진증길, 1930년 출생, 1947년 참군. 1955년 어느 날 밤 진증길과 전우들의 기념사진이 그의 길림 연변에 있는 집에 도착했다. 사진과 함께 돌아온 것은 그가 이미 조선전장에서 희생되였다는 소식이였다. 이 진귀한 사진은 가족들의 물밀듯 밀려오는 그리움을 수없이 보듬어주었고 가족들에게 살아갈 힘과 '재회'를 바라는 실낱같은 희망을 주었다. 이 희망 때문에 진씨 가족은 이곳에서 근 70년을 기다렸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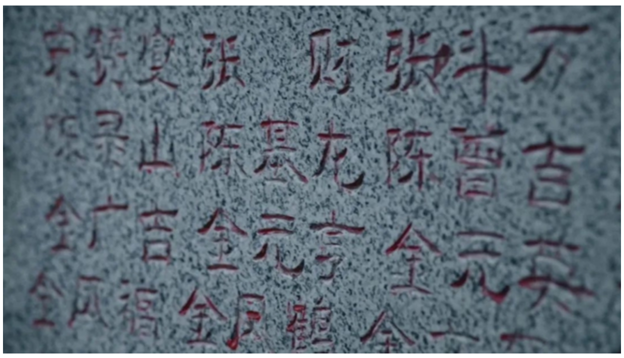
들은 집이 있기만 하면 이국타향에 있는 가족의 유해가 돌아와 깊이 잠들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믿었다.

올해 90 세가 넘은 김춘금은 진증길렬사의 제수이다. 오래동안 그녀는 남편, 시어머니와 서로 의지하여 살면서 조선과 가장 가까운 이곳에서 친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김춘금은 "시어머니가 림종전 나를 옆에 불러놓고 사후에 연길 화장터에서 화장시켜달라. 그러면 연기가 되여 높은 굴뚝으로 나가 높은 산을 넘고 두만강을 건너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다"라고 말했다.

근 70 년간 기다리던 렬사는 끝내 '귀가'했다. 2014 년 제 1 진 437 명의 재한 지원군렬사유해가 조국으로 돌아왔다. 진증길렬사의 도장을 단서로 하여 가족을 찾는 발걸음이 길림 연변에 이르렀다. 2019 년, 연변조선족자치주 퇴역군인사무국은 진증길렬사의 가족을 찾는 임무를 받았다. 사업일군들은 우대관리서류에서 1958 년에 등록된 렬속주소정보라는 관건적인 단서를 발견했다. 수십년이 흘러 가족이 이사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는데 사업조가 정보를 어렵게 배제조사하던중 도문시 월청진 마패촌에 진씨가정이 두집 있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사업일군들은 방문을 통해 렬사의 가족을 찾았다.

진증길렬사의 셋째동생 진호산의 DNA 샘플 채집과 비교를 거쳐 그와 진증길렬사의 유해가 생물학적 가족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했다. 이로써 진씨가족의 근 70 년간의 기다림에 마침내 마침표를 찍게 되였다.



한가족 7 명이 항미원조전쟁에 나간 진씨가족은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나아갔다. 자원봉사자 서숙자는 묘비에 새겨진 렬사명부를 정리하면서 여러개의 진씨 성을 가진 렬사의 이름이 진증길과 함께 새겨진 것을 발견하였다. 알고보니 당시 진증길과 함께 항미원조전쟁에 나간 사람들중에는 또 다른 6 명의 진씨가족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진봉익, 진봉천, 진봉만, 진은산, 진규동, 진록산이였다. 전쟁에서 그들은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그 뒤를 이어 나갔다. 마지막으로 진증길을 만난 사람은 그의 다섯째삼촌 진봉만이였다. 1950 년, 한차례 치렬한 전투에서 진봉만은 피바다 속에 쓰러진 조카 진증길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눈물을 머금고 20 세 밖에 안되는 조카를 직접 묻었다. 가족의 원쑤를 갚겠다는 강한 신념은 진풍만을 전쟁터에서 용감무쌍하게 만들었다. 그는 진씨가족 '7 용사'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였다.

서숙자가 정리한 3800 건의 연변적 렬사서류를 보면 진씨가족처럼 온가족이 함께 전쟁터에 나간 정황은 아주 많았다. 항미원조전쟁에서 연변은 중조변경의 첫번째 방어선이였다. 거의 집집마다 항미원조, 보가위국의 영광스런 사업에 뛰여들었는바 그들은 생사를 같이하고 환난을 함께 했다.

…

산마다 진달래, 마을마다 렬사비, 영렬들에게 경의를 표한다.





중국 첫 집단농장 성화조선족촌의 화려한 변신

중국 첫 집단농장의 탄생지인 흑룡강성 화천현 성화조선족향 성화촌은 국가의 향촌 진흥정책에 힘 입고 최철준 당지부서기를 핵심으로 하는 촌지도부와 촌민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농업, 관광, 문화산업을 일체화한 아름다운 촌 건설에서 비약의 날개를 굳혀 전국 문명촌으로, 국가 AAA 급 관광지로 거듭나며 오늘도 예전과 다름없이 중국 첫 집단농장의 풍채와 매력을 남김없이 발산하고 있다.

삼강평원의 복지도시 가목사시에서 가목사-무원 고속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19 킬로미터 가면 아늑히 펼쳐진 벼포전이 보인다. 여기가 바로 화천현 '백리 록색벼 장랑(长廊)'의 시발점인 성화촌이다.

1948 년 봄 조선족 농민 김백산과 리재근 등이 각자 몇십가구 조선족 농가를 거느리고 길림성 돈화, 연길 등 지에서 여기에 왔다. 늑대들이 욱실거리는 허허벌판에 첫 보습을 박아 억척스레 황무지를 개간하고 수리건설을 진행하여 논을 만들어 드디여 1951 년 2 월 21 일 새중국 첫 집단농장을 탄생시켰다.

벼 재배력사가 유구한 성화촌은 합리밀식, 항병력이 강한 벼품종 개발, 활생균(益生菌)기술을 리용한 토양 개량, 립체화 재배방식 고안 및 다양한 농업기술연구를 통해 새중국의 농업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농업부가가치를 증가하여 높은 경제효익을 창출하고 있다. '백색 진주'로 불리우는 성화쌀은 국빈연회용으로, 우주비행사의 식용으로 공급되기도 했다.

최근년간 성화촌은 국가의 향촌진흥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창의적인 촌발전계획을 수립하여 하나 하나 실속있게 추진했다. 우선 화천현 중점 추진 프로젝트에 편승하여 화천현 정부와 사회자본 투자 총 3000 여만원을 유치하여 다원화 문화관광리조트-화천현 성화장원 1 호 민속촌을 건설했다.

흰 벽에 고풍스럽고 생동한 청기와를 얹은 통일양식의 가지런한 전통 조선족 민가, 울긋불긋 꽃바다를 방불케 하는 화단, 확 트인 시원한 민속문화광장, 아름다운 경관벨트, 큰길옆 민속집 벽에 그려진 거폭의 민속풍격 채색그림, 하나 하나의 조형물이 한폭의 아름다운 화폭으로 어우러져 꽃동네, 경관속의 마을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꽃향기 그윽한 련못, 수상락원, 낚시터, 현대농업관광원, 신선 채소, 과일 채집 체험하우스, 순수한 조선족 풍미로 혀끝의 경전을 만들어내는 민족음식점 등을 건설하여 관광객들이 한번에 시골의 아늑한 정취를 만끽하고 아울러 민속특색, 농가체험을 즐길 수 있는 다양화 다

원화 리조트를 건설해 부동한 관광객들의 다각적 수요를 만족시켜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추진했다. 현재 성화촌은 가목사시 교외 관광풍경구의 하나로 부상했다. 마을이 풍경구로 변했고 농가가 민박으로 변했고 농산물이 특산물로 변했고 농가 밥상이 관광객들이 동경하는 록색 밥상으로 변했다.

새중국 첫 집단농장은 성화촌의 명품 브랜드이다. 성화촌은 촌사관을 건설하여 새중국 첫 집단농장의 발전력사 변천 사진을 전시했고 영광스러운 성화촌 력사문화내용을 각인 전승하여 일심전력하여 아름다운 촌을 건설하는데 일조했다.

오동숲이 우거지니 봉황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고향마을을 아름답게 건설하자 20 년전 청도에 진출하여 채소회사를 운영하던 한류화를 비롯한 귀향창업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현재 촌 부녀주임으로, 치부 선줄군으로 활약하는 한류화는 촌민들을 이끌고 마을의 유휴 채소밭을 활용하여 '류화언니네 생태 채소밭'이라고 이름을 짓고 채소를 심어 판매하고 있다. 그가 경영하는 생태 채소밭에서 나는 채소들은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다.

"당과 정부의 혜택으로 마을이 화려하게 변신했지만 앞으로 마을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적은 것이 가장 큰 고민"이라고 말하는 최철준 당지부서기는 향후 지속적으로 마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젊고 유능한 인재유치에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출처:흑룡강신문

재청도 조선족들, 지역 공익활동서 활력소로 거듭나

재청도 조선족들이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에서 신선한 활력소로 거듭나 세간의 화두로 되고 있다.

청도시 성양구인민정부에 공식 등록된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는 2019 년도에 설립되였고 2021 년도에 당지부가 설립되였으며 'AAA 급' 사회단체로서 지난해에 성양구자선총회 리사단위로 되였다.

지난 8 일,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에서는 500 여명이 참가한 공익대회를 개최, 이날 조선족들은 뛰여난 활약을 보여 청도시 성양구정부 관계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대회의 첫 무대를 화려하게 장식한 주인공은 바로 '청도아리랑민속예술단'이였다. 청도아리랑민속예술단은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와 협력 관계를 맺은 단체로서 이들은 첫 무대에서 흥겨운 장고춤으로 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대회의 관명권을 따낸 사람 역시 조선족이였다.

지난 몇해 동안 매번 공익활동이 있을 때마다 통 큰 기부를 이어왔던 청도성유해방직판매유한



회사의 오춘매는 이날도 변함없는 마음가짐을 보여주어 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다.

또한 공익행사의 일환으로 펼쳐진 기부판매 활동에서도 조선족들은 적게는 생활용품을, 많게는 가정용 의료기계를 구매했으며 또한 월드옥타청도지회, 청도조선족녀성협회에서도 이날 행사에 참가하여 주목을 받았다.

조선족들의 활약을 인정한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에서는 이날 청도일출의료기계과학기술유한회사 채홍길, 청도세한국제주식유한회사 림해연, 청도하늘호텔관리자문유한회사 려춘홍을 부회장으로 진급시키고 임명장을 발급했다. 이로써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에는 부회장급 단위가 4 개, 리사급 단위가 13 개로 늘었다.

'청도사랑의 빛 공익협회'에는 현재 456 명 회원중 조선족 회원이 근 100 명이 되며 이들의 활약은 갈수록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있다.

출처: 연변일보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구두친서를 보내여왔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구두친서를 보내여왔다.

습근평총서기동지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으로 다시 선거된것과 관련하여 **김정은**총비서동지가 제일먼저 축전을 보내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총비서동지께 따뜻한 인사와 훌륭한 축원을 보내였다.

습근평총서기동지는 중조 두 당, 두 나라관계를 매우 중시한다고 하면서 **김정은**총비서동지와 함께 새로운 정세하에서 중조관계에 대한 전략적인도를 강화하여 두 나라 사회주의위업의 발전을 추동하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발전과 번영을 촉진시켜나갈 용의가 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김정은**동지께 보내여온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습근평동지의 구두친서를 7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장 김성남동지에게 위임에 따라 왕아군 중화인민공화국 신임특명전권대사가 전달하였다.



조중친선의 새로운 발전을 추동한 력사적사변

조중친선의 력사의 갈피에는 광활한 중화대지에 뜻깊은 첫 자욱을 새기시며 정력적인 대외활동으로 조중친선관계발전에 새로운 활력을 부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숭엄히 아로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5 년전인 2018 년 3 월 25~28 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조중친선의 오랜 력사적전통과 혁명적의리를 변함없이 지키며 두 나라관계를 대를 이어 훌륭히 계승발전시켜나가실 숭고한 의지를 안으시고 습근평총서기동지의 초청에 따라 첫 외국방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을 비공식방문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의 국빈으로 맞이한 습근평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모택동, 주은래, 등소평동지들과 친선의 정을 나누신 낚시터국빈관 양원재에서 특별히 오찬을 마련하고 가정적인 분위기속에서 **김정은**동지와 친분관계를 두터이 하면서 최대의 성의를 다해 극진히 환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중국방문을 환영하는 연회에서 한 연설에서 습근평동지는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피로써 맺어진 친선으로서 세상에 유일무이한것이며 뿌리깊고 잎이 우거진 나무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줄기처럼 우리 두 당과 두 나라 인민에게 행복을 마련해주고있다고 하면서 공동의 귀중한 재부인 친선을 쌍방이 귀중히 여기고 정성껏 수호하며 끊임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국가주석으로 다시 선거된 습근평동지를 열렬히 축하하시면서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사회주의위업을 위한 성스러운 공동의 투쟁에서 맺어지고 력사의 온갖 돌풍속에서도 자기의 본태를 지켜온 조중친선관계를 새로운 높이에서 강화발전시켜나가려는 우리 당과 정부의 확고부동한 결심을 피력하시였다.

조중친선의 년대기우에 빛나는 장으로 아로새겨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은 깊고도 오랜 력사와 전통을 가진 조중친선관계를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켜나가는데서 획기적인 리정표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그후에도 1 년 남짓한 기간에 습근평동지와 베이징과 평양에서 4 차에 걸쳐 뜻깊은 상봉과 회담을 진행하시면서 진실한 동지적관계로 조중친선관계의 새로운 승화발전을 강력히 추동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3 월 10 일 국가주석으로 또다시 선거된 습근평동지에게 축전을 보내시여 열렬히 축하하심으로써 두 나라 수령들사이의 두터운 친분관계와 사회주의를 핵으로 하는 조중친선의 특수성이 다시한번 힘있게 과시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수령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협조관계는 더욱더 왕성한 생명력을 발휘하며 계속 줄기차게 강화발전될것이다.(끝)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의 최고화신

4 월 15 일은 민족최대의 명절이며 인류공동의 대경사인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 돐이 되는 뜻깊은 날이다.

이날을 맞으며 우리 인민뿐 아니라 세계진보적인민들 모두는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전설처럼 전해지고있는 그이의 사심없는 국제주의적 지지와 원조에 대하여 다시금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국제주의기치를 높이 드시고 중국혁명을 피로써 도와주시고 쏘련을 무장으로 옹호하시였다.

장개석도당을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국내혁명전쟁에 우리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을 파견하여주신 그이께서는 해방후 나라형편이 그토록 어려운 속에서도 중국인민들에게 10 만여정의 무기와 탄약, 군복과 신발, 의약품 등 수많은 군수물자들을 아낌없이 보내주시였으며 우리나라의 북부지역을 전략적인 통로로 리용하도록 하는 대용단도 서슴없이 내리시였다.

중국혁명을 돕기 위해 국경을 넘어 전장에까지 몸소 나가시여 밤을 지새우며 작전토의를 하여주시고 적들에게 끌려가던 료녕군구(당시) 지휘성원들의 가족들까지 구출하도록 하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1958 년 2 월 우리 나라를 방문한 주은래총리는 과거 중국인민의 여러차례에 걸친 국내혁명전

쟁시기와 항일전쟁기간에 조선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중국인민을 지원하였다고 토로하였다.

중국에서 출판한 여러 도서들에서는 중국인민의 항미원조가 있기 전에 조선인민의 항일원화가 있었다고 하면서 조선동지들은 중국동북지역의 유격대는 물론 항일련군에서도 정치군사방면의 주요한 지휘관들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중국혁명을 희생적으로 돕는 국제주의의 산모범을 보여주시였다고 격찬하였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며 평화와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이라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의 투쟁이든 물심량면으로 지지성원해주어야 한다는것이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확고한 국제주의지론이였고 립장이였다.

온 세계를 그러안는 비범한 웅지와 넓은 도량을 지니신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국제주의는 꾸바와 웰남, 아랍지역과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새사회건설을 위한 투쟁들마다에서도 고무적기치로 되였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원조에 대해 앞으로 값을 치르겠다고 할 때마다 그이께서는 지난날 우리가 체험한 쓰라린 교훈을 생각해서라도 당신들을 도와주려고 한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당신들을 도와주는 대신에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가 차관형식으로 도와주는 경우에도 차관을 물수 있을 때에 가서 물면 된다고 겸허하게 말씀하군 하시였다.

한두권의 책이나 글로써는 다 표현못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숭고한 국제주의적의리의 세계는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수억만인류의 심장속에 영생불멸할것이다.(끝)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에 즈음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 중국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11돐에 즈음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의 경축모임이 12일 중국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 중국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모임에서는 발언들이 있었다.

장울화의 딸 장금록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은 하늘이 낸분이시다.

주석께서 우리곁을 떠나신 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그이의 인자하신 모습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이 간직되여있다.

우리는 **김일성**주석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중조친선의 계승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주보중의 딸 주위는 이렇게 언급하였다.

김일성주석은 조선인민이 높이 우러러모시는 공화국의 창건자이시며 중국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다.

그이께서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인민을 이끌어 나라의 독립을 수호하시였으며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오늘 **김정은**동지께서는 온 사회를 하나로 더욱 굳게 단합시켜 부닥치는 난관을 과감히 뚫고나가신다.

두 나라 지도자들의 관심속에 전통적인 중조친선은 날로 발전할것이다.

풍중운의 아들 풍송광은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우리들의 아버지세대는 항일전쟁의 불길속에서 조선동지들과 함께 피로써 혁명적우의를 맺었다.그들의 투쟁정신을 잊을수 없다.

우리 온 가족이 **김일성**주석을 모시고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그이에 대한 그리움은 더더욱 깊어만 간다.

우리는 중조친선에 대한 그이의 기대를 잊지 않을것이다.

리재덕의 아들 우명은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 바치신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하고 성스러운 한생을 격찬하고 **김일성**주석께서는 태양과도 같이 조선을 밝게 비쳐주고계신다, **김정은**총비서께서 계시여 조선에서 **김일성-김정일**주의기치가 변함없이 고수되리라고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상월선생의 아들 상소위는 이렇게 피력하였다.

김일성주석의 탄생일을 맞으며 나와 온 가족은 그이를 모시였던 아름답고 행복한 나날들을 감회깊이 추억하면서 지난 수십년간 조선이 이룩한 발전과 번영에 대해 돌이켜본다.

주석의 생전의 뜻대로 우리들은 세대를 이어가는 두 나라 인민들사이의 친선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해 응당한 노력과 공헌을 할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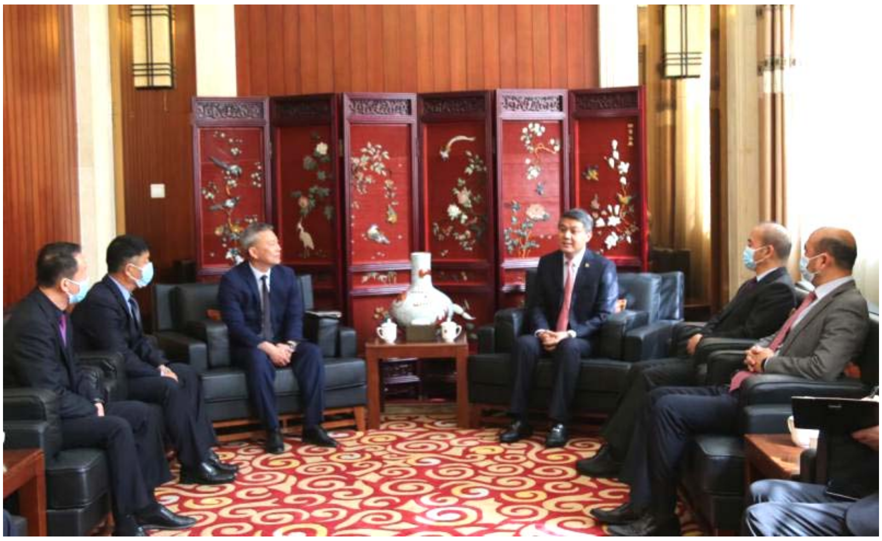
조선의 륭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충심으로 축원한다.

채세영의 증손자 채룡은 조선인민과 언제나 마음을 잇고 **김일성**주석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 모실것이다, 선배들이 마련한 력사적인 중조친선을 소중히 여기고 이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할것이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태양절에 즈음하여 １３일 중국 심양에서 항일혁명투쟁연고자가족들과의 좌담회, 영화감상회가 진행되였다. 【조선중앙통신】

王亚军大使会见旅朝侨领赛铁军

2023 年 4 月 13 日，王亚军大使会见朝鲜华侨联合会中央委员会委员长赛铁军。驻朝鲜使馆公使冯春台、公参孙洪量、参赞朱家耀，华联会中央委员会指导员金昌根等参加。



王大使积极评价华联会为服务华侨所做工作，表示希望华联会继续为团结和服务侨胞、为中朝两国友谊发挥桥梁和纽带作用，为朝鲜社会主义建设和祖国繁荣发展作出新的贡献。使馆将秉持和践行“外交为民”宗旨，一如既往支持华联会工作，为广大侨胞办实事、解难题。

赛铁军委员长祝贺王大使就任履新，感谢驻朝鲜使馆长期以来对旅朝华侨的关心和爱护，表示华联会将继续积做好联络和服务侨胞工作，为促进中朝友好关系发展作出更多努力。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단체, 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여왔다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에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111돐에 즈음하여 재중동포단체, 동포들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여왔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중국 단동시조선족련합회, 단동시조선족총상회, 단동시조선족련합회 부녀분회, 체육분회, 청년분회, 애심분회, 무역분회, 료식분회, 배구분회, 의료분회, 기류분회, 문예분회, 교육분회, 봉성분회와 단동시조선족련합회 회장 심청송, 단동항풍상무유한공사 경리 림빈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였다.

꽃바구니들의 댕기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글발이 모셔져있었다.

한편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재중조선인총련합회 길림지구협회 전 부회장 홍영순가족인 중국 홍콩오주투자주식유한공사 총경리 주정강, 경리 류홍의 공동명의로 된 꽃바구니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기금리사회 상임리사 최동원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진정되였다.

情 寄 朝 鲜

献给伟大的金日成主席诞辰111周年

李 和 平

小时候
我就知道世界上
有一个国家叫朝鲜
那里山川秀美　水土丰满
人杰地灵　鲜花盛开
领袖英明　国泰民安……

上学了
我又知道世界上
有一个国家叫朝鲜
那里历史悠久　文化灿烂
民族伟大　人民向善
不畏强敌　坚定勇敢……

长大了
我更知道世界上
有一个国家叫朝鲜
那里制度优越　社会和谐
人人平等　相亲相爱
敢于斗争　愈战愈坚……

到后来
我曾有幸多次去访问朝鲜
我像走亲戚那样满怀喜悦
我像回家乡那样装满想念
那是怎样的一方充满正气的国土啊
常常让我眼含热泪
时时教我推崇膜拜……

蓝天白云　大地温暖
宽阔的大同江碧水如银
美丽的金达莱花开鲜艳
雄伟的主体思想塔顶天立地
庄严的凯旋门英姿巍峨壮观
高高耸立的友谊塔啊威镇四方
庄严神圣的**金日成**广场国旗招展……

我最敬仰万寿台的气势
那里有两代伟人亲切高大的铜像
巍然屹立　指点江山
我曾多次带着团员们去敬献鲜花
我也曾亲眼看到朝鲜人民对伟大领袖
无限的深情和无尽的思念……

我最敬仰太阳宫的神圣
曾多次幸福地瞻仰了两代领袖的容颜
那伟岸的身躯连同他们不朽的功绩
深深地映入了我崇敬的心田
伟大的**金日成**主席永远同我们在一起
伟大的**金正日**委员长永远与祖国同在
领袖的思想指引方向
领袖的光辉永照人寰……

我还曾多次荣幸地参观过
朝鲜祖国解放战争胜利纪念馆
妙香山友谊博物馆
金日成少年宫　**金日成**体育场　平壤杂技院
平壤养老院　平壤育儿园　平壤科技馆等
我还曾愉快地游览过
朝鲜国家著名的风景名胜金刚山
这一切的一切
都使我真切地感受到朝鲜人民的幸福生活
都使我看到了社会主义朝鲜正在阔步向前……

我还曾多次带着志愿军老兵和烈士家属亲人后代
到桧仓、开城、安州、江东、九峰里、上甘岭等地
祭扫志愿军烈士陵园
那些长眠在朝鲜国土上的志愿军烈士啊
忠魂不朽　群星璀璨
他们永远是中国人民的骄傲
他们永远是朝鲜国土上挺拔壮丽的高山……

啊，三千里锦绣江山风景如画
二千六百多万英雄的朝鲜儿女勇往直前
我热爱朝鲜国家的山山水水
我赞美朝鲜社会的壮阔发展
我崇敬朝鲜民族的奋斗精神
我歌唱朝鲜人民的正义勇敢
我愿做朝鲜人民最真诚的朋友
我期盼中朝两国人民的友谊历久弥坚……

平壤的四月
美丽的金达莱花又开了
那是我们最深情的祝福
那是我们最长久的思念
在这个春暖花开的季节里
我们衷心地祝愿伟大领袖**金日成**主席生日永恒
我们衷心地祝愿朝鲜国家的建设事业蓬勃发展……

作者：李和平
中国成都毛泽东诗词研究会副会长
中国四川省作家协会会员作家诗人
2023 年 3 月 28 日


왼쪽 리화평부회장

중국 출입국관광 질서 있게 회복!

최근 해외관광팀들이 속속 출발하고 있고 해외관광객들의 중국방문도 이어지고 있다.세계관광련맹 등은 최근 <2023 년 상반기 중국 해외관광시장 경기보고서>와 <2023 년 상반기 중국 입국관광시장 경기보고서>(이하 <보고서>)를 발표해 중국 출입국 관광이 질서 있게 회복되고 있다면서 해외관광시장 잠재력이 크며 입국관광이 새로운 계기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더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해외로 나가고 더 많은 해외 관광객들이 중국을 찾을 것이라고 한다.

해외관광의욕 증강

료해에 따르면 5.1 절 해외관광상품이 불티나게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13 일 관광', '애급 13 일 관광', '뉴질랜드 남북섬 14 일 관광' 등 상품들이 플랫폼에 출시된 후 빠르게 매진되였고 현재 단거리상품들은 4 월초에 비해 성장폭이 300%에서 400%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3 년간 억눌린 해외려행수요가 집중적으로 폭발해 2023 년 상반기 중국 해외관광시장의 경기지수가 2019 년 상반기 수준을 넘어섰고 관광객들은 더 강한 관광의욕을 보였으며 전통적인 '말타고 꽃구경'에서 벗어나 심도 있는 문화관광과 특색관광으로 전환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최신 공개!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가장 유력한 기원은?

4 월 8 일, 국무원 보도판공실은 우리 나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추적연구현황 소식발표회를 가졌다.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연구원 주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과 관련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

터의 연구결과 실험실을 통한 도입은 '극히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우리 나라는 1 단계 공동연구과정에서 이미 하나의 결론을 얻었는데 당시 우리 나라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으로 발표한 공동연구보고에 충분히 제시되였다. 보고에서 우리 나라는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한 몇가지 가설 연구 및 판단 결과를 명확하게 제기했다. 보고에는 인간의 측면, 동물의 측면, 종속간 전파 및 실험실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두 평가를 진행했다. 당시 무한에서 공동전문가팀이 류행병학팀, 동물근원추적팀, 분자근원추적팀으로 나뉘여 각기 연구작업을 전개했기에 그 당시 얻은 종합적인 연구판단의 결론에 대해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는 과학적이고 믿을 만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주뢰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기원에 대해 동물원성감염증(人畜共患病)이 직접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은 '가능 내지 비교적 가능'에 달하고 중간 숙주를 통한 도입은 '비교적 가능성 내지 매우 가능'에 달하며 콜드체인을 통한 도입은 '가능'에 달하지만 실험실을 통한 도입은 당시 연구에서 '극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였다고 밝혔다.

주뢰는 무한의 제 1 단계 공동근원추적연구를 마친 후에도 우리 나라는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면서 당시 무한에서 제정한 다음 단계의 업무계획과 건의에 따라 많은 연구 작업을 계속 전개해왔는데 다양한 연구결과도 모두 무한의 제 1 단계 연구결론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인민넷

시속 600km! 자기부상렬차 첫 운행

우리 나라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600km 시속의 고온초전도전동부상교통시스템이 최초로 자기부상운행을 실현했다.

3 월 31 일, 중차장춘궤도버스주식유한회사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이 기업에서 자주적으로 연구개발한 고온초전도전동부상전요소실험시스템이 최초로 자기부상운행을 완성하여 다음단계의 공정화 응용에 토대를 마련했다고 한다.

중차장춘궤도뻐스유한회사 부총공정사 겸 자기부상연구소 소장 여청송의 소개에 따르면 고온초전도전동부상교통시스템은 차량, 궤도, 견인전기, 운행통신 등 시스템으로 구성되였는데 고속, 초고속과 저진공관 등 운용정경에 적용되고 운행시속이 600km 이상에 달하며 고속, 안전, 록색, 스마트, 쾌적 및 높은 환경적응성 등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에 부상운행을 실현한 고온초전도전동부상시스템은 수동부상방식을 사용하여 능동제어가 필요없으며 부상 및 유도 간격이 크고 선로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며 속도향상공간이 넓고 차량 비상운행능력이 강하며 안전성이 높다. 초전도전동부상교통시스템은 초대도시와 발달한 경제권 간의 신속한 운동통로 선택으로 될 수 있고 국토공간배치를 최적화할 수 있으며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고 종합적인 립체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公安交管部门陆续推出近百项改革措施

来源： 人民日报

为更好适应人员、货物、车辆大流动的新形势和百姓的新需求，全国各级公安交管部门深化公安交管改革，据介绍，党的十九大以来，陆续推出近百项公安交管改革措施，累计减少群众企业办事成本 1000 多亿元，车检难、驾考难、进城难等群众反映的突出问题得到总体上解决，交通拥堵、出行难、停车难等“城市病”得到缓解，电子驾驶证、检验标志电子化、“交管 12123”在政务服务领域得到广泛应用。

近日，公安部召开新闻发布会，通报最新推出的公安交管服务群众服务发展 10 项便利措施，涵盖车驾管办牌办证、城市交通秩序、事故和违法处理、驾驶人教育审验和农村交通安全管理等。新措施将自今年 6 月 1 日起实施。……

中消协养老消费调查显示：老年人消费环境仍需“适老化”提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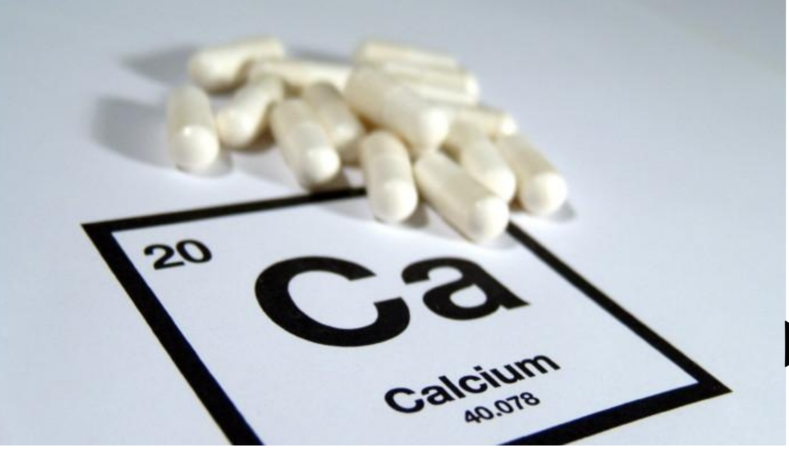
来源： 光明日报



伴随着我国老龄化进程加快，“银发经济”蓬勃发展，同时也出现了诱导消费、集资诈骗、冒充“以房养老”等消费陷阱，养老消费与维权成为社会关注的焦点。

4 月 19 日，中国消费者协会发布《2022 年养老消费调查项目研究报告》，从需求与供给两端对养老消费的现状进行分析。报告显示，老人居家养老需求重在家政清洁、餐饮、老年饭桌等“日常所需”，机构养老需求重在“医养结合”，特殊护理用品、辅助用品需求增加。低龄老年人消费更具活力，升级型消费需求明显，高龄老人养老亟须加大支持力度。整体而言，老年人消费环境仍需“适老化”提升。

为了厘清当前养老服务和老年消费现状，2022 年中消协组织专项调查。本次调查覆盖东部、中部、西部地区，选择在老龄化程度较高、养老机构众多的十个城市开展，分别为南通、大连、上海、沈阳、哈尔滨、重庆、北京、青岛、大理和郑州。……



日常如何补充钙铁营养

来源：人民快报

近年来，随着中国国民生活水平的提升，消费者认知升级及科学饮食观念的普及，高品质、高营养的乳制品逐渐受到消费者亲睐。3 月 1 日，明治首次在华推出全新低温调制乳“铁骨真真”，这款新品以创新思维打破传统低温牛奶单一赛道，延续明治醇壹牛乳的新鲜口感，融合日本明治丰厚经验，将日本纯熟的制造技术、品质管理、研究开发等经验运用其中，在华布局全新赛道，旨在进一步深耕中国市场

新鲜口感，让钙铁也能好好喝

作为“食品与健康”事业的专家，明治长期以来严选牧场奶源，高品质生牛乳从牧场到工厂的运输中全程使用保持低温运输的专业奶罐车，以确保生牛乳品质与新鲜度。全新低温调制乳“铁骨真真”兼顾优质口感与营养，除每百毫升含 3.9g 蛋白质外，更值得一提的是，每百毫升含 212mg 钙和 1.8mg 铁，口感新鲜，“铁骨真真”让钙铁也能好好喝。

“铁骨真真”树匠心

因膳食结构以植物性膳食为主[1]，中国人普遍缺乏钙、铁元素[2]。钙、铁元素除了会随着人体新陈代谢正常流失，浓茶及咖啡等饮食习惯也是导致其流失的重要因素。中老年人钙铁质流失尤为显著，而儿童因生长发育对于钙铁需求尤为旺盛[3]，除中老年人、儿童等核心需求人群外，研究表明，铁元素缺乏症主要发生在育龄女性身上，且 30 岁后体内钙元素流失加速，女性每次生理周期均会大量流失钙、铁元素[4]。成年女性贫血率是 13.2%，高出男性达 3 倍之多[5]。

明治通过洞悉中国市场这一诉求，推出全新低温“铁骨真真调制乳”，希望借由“铁骨真真”的推出呼吁普通成年人关注日常补充钙铁营养。以匠心品质，为行业注入新能量，开拓中国市场新赛道，为中国消费者带来更优质的产品。

文献参考：

[1]《中国居民膳食指南科学研究报告(2021)》

[2]《中国居民营养与慢性病状况报告(2015)》

[3]《中国居民营养与健康状况调查报告》

[4] 中华医学会血液学分会红细胞疾病（贫血）学组. 铁缺乏症和缺铁性贫血诊治和预防的多学科专家共识（2022 年版）[J]. 中华医学杂志, 2022, 102(41)

[5]《中国居民营养与慢性病状况报告（2020）》公布了我国各年龄段人群贫血的数据，18 岁以上成年居民的贫血率为 8.7%（其中，男性贫血率为 4.2%，女性贫血率为 13.2%），12-17 岁的青少年贫血率为 6.6%，6-11 岁儿童贫血率为 4.4%，6 岁以下的儿童贫血率为 21.2%。

국제단신

guojiduanxin

로씨야의 정부,정당,사회단체들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로씨야의 정부,정당,사회단체들의 경축모임이 13 일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대사관에서 진행되였다.

로씨야 국가회의,외무성,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친선 및 문화협조 로씨야협회를 비롯한 정부,정당,사회단체 인사들 그리고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등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함께 계시는 영상미술작품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리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로친선관계발전에 쌓아올리신 업적을 담은 영상사진문헌들과 절세위인들의 로작들,우리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도서들도 돌아보았다.

모임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로씨야외무성 부상은 **김일성**동지는 한평생 조국을 위해 끝없이 헌신하신 탁월한 국가활동가이시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그이께서는 전체 조선인민의 다함없는 흠모를 받으시였다.

김일성동지는 로씨야인민의 친근한 벗이시며 세계 모든 나라가 그이를 열렬히 칭송하였다.

로씨야평화 및 통일당 위원장은 조선의 강대성은 세계가 인정하고있다고 하면서 그 강대성은 **김일성**동지의 업적과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고 말하였다.

김일성동지는 인민을 하늘로,무궁무진한 힘의 창조자로 여기시고 그 힘에 의거하여 자주정치를 펼치신 위대한 수령이시라고 그는 격찬하였다.

한편 태양절에 즈음하여 14 일 로씨야의 하바롭스크주재 우리 나라 대표부에서도 경축행사가 진행되였다.(끝)

미국의 국가관리는 전쟁기계가 한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폭로

중국의 신화통신이 최근 《누가 국가를 관리하는가? 바로 전쟁기계이다.》라는 제목으로 미국의 전쟁정책을 폭로하는 글을 발표하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 년전 4 월 9 일 미군이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를 점령함으로써 한때 부유하던 이 중동나라는 끝이 없는 전란과 충돌의 소용돌이속에 빠져들었다.

일부 사람들은 미국이 해외전쟁을 일으켰거나 해외전쟁을 일으키는 로상에 있다고 묘사하였다.

그러면 누가 미국의 끝이 없는 해외전쟁에서 막대한 리득을 얻고있는가?

대답은 간단명료하다. 그것은 미국의 정책작성을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그에 영향을 주는 리익집단 특히 군수복합체이다.

세계를 파괴하는 괴물: 지속되는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이다

유럽에서의 전쟁이 격화된이래 미군수업체는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수많은 군수공장들에서는 전장에서 소모가 많은 각종 포탄을 생산하는것을 포함하여 생산량을 늘이는데 전력을 다하고있다.

미륙군은 텍사스주에 포탄공장을 새로 건설할것을 계획하고있으며 아이오와주에 위치한 155 ㎜구경의 포탄을 생산하는 공장도 확장되고있다.

바이든정부가 집권한이래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도합 300 억 US$에 달하는 군사원조를 제공할것을 약속하였는데 록키드 마틴회사를 비롯한 군수기업거두들이 대부분의 군수품주문을 독차지하였다.

미국 피쯔버그대학의 한 법학교수는 미군수상인들은 세계에 무기를 판매하는것을 통해 돈을 벌고있으며 그들은 전쟁결과가 어떻든 무기만 팔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고있다, 지속되는 전쟁은 그들이 바라는 결과이다고 말하였다. 그는 미군수복합체를 《세계의 화근》으로 묘사하였다.

랭전이 종식된이래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동쪽에로 세력을 확대하고 로씨야에 대한 지정학적 및 전략적압박을 다방면적으로 가함으로써 2022 년에 유럽대륙에서 전쟁의 불길이 다시 타번지게 하였다.

자료에 의하면 위기가 격화된 때로부터 지난해말에 이르기까지 미군수업체들이 동반국으로부터 따낸 군수품주문총액은 약 220 억 US$에 달한다.

스탠포드종합대학의 한 심리학자는 자기의 저서에서 《전쟁은 누군가가 준비하여야 한다. 만일 이러한 사람들의 부추김이 없다면 전쟁은 애당초 일어날수 없다.》고 밝혔다.

불완전통계에 의하면 제 2 차 세계대전이 끝난 때로부터 2001 년에 이르기까지 세계의 153 개 지역에서 248 차례의 무장충돌이 일어났는데 그중 미국이 일으킨것은 무려 201 차례에 달한다.

21 세기에 들어선 후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라는 간판밑에 아프가니스탄파병, 이라크침입, 리비아공습, 수리아에 대한 간섭 등 세계의 각지에서 빈번히 무력을 사용하였다.

미군수복합체는 전쟁의 불길을 전세계에로 확대시켜 수많은 나라와 지역을 전란과 동란속에 몰아넣음으로써 90 만명이상의 사망자와 수백만명의 부상자, 수천만명의 피난민을 산생시켰다.

미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하나의 외곡된 론리가 존재하는데 그것은 저들이 폭력 및 테로활동의 기본장본인이면서도 오히려 《테로를 타격한다.》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전쟁은 군수복합체의 리익에 부합되며 이로 하여 대가를 치르는것은 아프가니스탄인과 이라크인, 리비아인, 수리아인 등이다.

그 어디에나 뻗어나간 거대한 그물: 전체 미국사회를 주무르다

미국의 군수복합체는 제 2 차 세계대전이후부터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랭전 전 기간 미국의 군사비는 10 조 US$에 달하였고 그 직접적인 수익자는 군수복합체였다.

당시 누군가는 미국경제는 이미 《땅크에 묶인 부속물》이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지난 수십년간 군부와 군수기업, 정객들사이의 결탁으로 형성된 이 특수한 리익집단은 세계적범위에서 끊임없이 충돌을 부추기고 전란을 일으킴으로써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하고 엄중한 인도주의재난을 몰아온 동시에 전쟁을 통해 재산을 긁어모아 《전체 미국사회를 주무를수 있는》 육중한 거물로 팽창되였다.

오늘날 미국에서 군수복합체는 군수상인과 금융과두, 정객, 학술계의 세객, 보도계의 거두 등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생각하고있는 모든것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있으며 촉각이 사회의 각곳으로 뻗어나간 거대한 그물을 형성하였다.

현 미국방장관 오스틴은 2016 년 중앙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난 후 레이디온회사 등 여러 회사의 리사회성원으로 되였고 자문회사까지 조직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마티스는 국방장관직에 임명되기 전에 제네랄 다이나믹스회사의 리사회성원이였고 국방장관직에서 물러난 후에는 또다시 이 회사의 리사회성원이 되였다.

이전 미국방장관 에스퍼는 레이디온회사의 고위관리였고 정부에서 퇴직한 후에는 군용설비를 제작하는 에피루스회사에 들어갔다.

미국사회학자 챨즈 라이트 밀즈는 도서 《권력엘리트》에서 《회전문을 나드는 미국의 권력엘리트들》이 국가라는 기계를 조종하고 각종 특권을 가지고있으며 정책을 결정할수 있는 권력을 틀어쥐고있다고 밝혔다.

자기를 해치는 고질병: 상층사회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의 리익만을 위해 복무하다

《전쟁을 그만두라! 전쟁을 그만두라!》

올해 2 월 19 일 미국의 수도 워싱톤에서 벌어진 반전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미국이 로씨야-우크라이나충돌을 부추기는것을 반대하고 나토해체, 미국의 군비축감을 요구하였다.

한 시위자는 미국에는 군수복합체가 필요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많은 자금을 군사분야에 투자하고 병력을 다른 나라의 국경과 가까운 지역에 배비함으로써 세계에서 불안을 조성하고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정객들은 전쟁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못들은척 하고있다.

미국의 《오픈 씨크리츠》웨브싸이트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미군수업체들은 부단히 늘어나는 국방예산에서 보다 많은 몫을 차지하기 위해 2022 년 1. 4 분기-3. 4 분기에 도합 1 억 100 만 US$를 정객들을 매수하는데 탕진하였다.

군수복합체의 부추김밑에 미국은 세계의 각지에서 부단히 전란과 충돌을 일으켜 수많은 나라들에 커다란 재난을 들씌웠을뿐 아니라 저들도 대가를 치르고있다.

미국 브라운종합대학이 발표한 《전쟁대가》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7 000 명이상의 미군사병들과 8 000 명이상의 미군고용병들이 21 세기초이래의 전쟁과정에 죽었으며 자살한 현역군인 및 퇴역군인수는 적어도 전투과정에 죽은 군인수의 4 배로서 3 만명이상으로 추산된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전쟁에서 약 2 조 2 600 억 US$를, 이라크전쟁에서 1 조 9 200 억 US$를 탕진하였는데 거액의 군사비지출은 미련방정부가 오늘날 31 조 US$이상의 채무를 지게 한 중요한 원인으로 되였다.

식량과 에네르기가격이 뛰여오르면서 미국에서 인플레가 악화되였으며 미련방준비제도리사회는 인플레를 억제한다고 하면서 대폭적인 금리인상조치를 취함으로써 금융분야에 또다시 불안정을 조성하였다.

군수복합체의 커다란 영향력은 미국으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할수 없게 하는 한편 군수산업들이 경쟁을 배척하고 권력을 독차지하도록 하는 등 독점 및 부패행위를 조장시켰다. 이 리익집단의 형성은 미국의 정치인들과 기업가들사이의 결탁 등 많은 문제들이 공동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미 하나의 악성종양으로 된 군수복합체는 세계에 피해를 주고있을뿐 아니라 미국자체를 심히 부식시키고있다.

미국잡지 《제이코빈》은 글에서 군수복합체의 주도밑에 원래 깨끗한 에네르기, 하부구조 등 분야에서 보다 많은 가치를 창조할수 있는 거액의 자금이 군수분야에 투입되고있다고 하면서 《이것은

군수상인들이 좋아하는 정책으로서 상층사회의 1%에 해당한 사람들의 리익에만 복무한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 반전인사는 미국의 적은 다름아닌 이 나라의 수조 US$를 략탈해가는 군수복합체이라고 하면서 《전쟁기계는 멈춰세울수 없다. 누가 국가를 관리하는가? 바로 전쟁기계이다.》라고 주장하였다.

미국이 감독하는 '민주주의 블록버스터'는 동요의 화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관련국 정상에게 제 2 회 '민주주의 정상회의' 세션중 하나를 주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초청장을 보냈다. 일전, 왕문빈 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보도에 대해 "이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사실 반 민주적"이라면서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이 미국이 감독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블록버스터'는 세계의 복음이 아닌 동요의 화근"이라고 밝혔다.

왕문빈 대변인은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사실 반민주적"이라면서 "1 년여 전 미국은 민주주의의 기치를 내걸고 이른바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해 공공연히 리념적으로 선을 그어 세계에 분렬을 조장했고 민주주의 정신을 모독하고 짓밟는 해프닝이 되여 미국의 '가짜 민주주의, 진짜 패권'의 실체를 충분히 드러냄으로써 많은 나라의 비판을 받았고 반발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일각에서는 '민주주의의 등대'라고 자처하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어떤가라고 반문하며 이는 미국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세계인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쎈터의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5 분의 1 만이 미국 련방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력사상 가장 낮은 수준이다. 또 미국인의 65%가 공직에 출마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개인적 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응답했다. 독일 시장조사기관 달리아 리서치와 국제민주련맹(IDU)이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민주적이라고 응답한 미국인은 채 50%도 되지 않았고 전세계인의 43%가 자국의 민주주의가 미국에 위협받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왕문빈 대변인은 이런 내용을 언급하며 "미국의 민주주의를 자국민들조차도 신뢰하지 않는데 무슨 자격으로 다른 나라의 민주주의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하느냐?"고 반문했다.

왕문빈 대변인은 또 "갈수록 커지는 자국의 '민주주의 적자'에 직면해 미국은 반성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떠 세계에서 강제로 '미국식 민주주의'를 팔아먹고 '민주주의 확산'이라는 명분으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고 전쟁도 불사한다."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미국은 중남미에서 '신먼로주의'를 추진하고 유라시아에서는 '색갈혁명'을 선동하며 서아시아·북아프리카에서는 '아랍의 봄'을 책동해 여러 나라에 지속적인 사회적 혼란과 사람들이 편안히 살 수 없는 인권 재앙을 몰고 왔다."면서 "이런 '미국식 민주주의' 반면교재는 비일비재하다. 사실이 거듭 증명하듯이 미국이 감독하는 이른바 '민주주의 블록버스터'는 세계의 복음이 아닌 동요의 화근"이라고 주장했다.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로씨야태평양함대의 전체 부대들 비상검열훈련에 진입

로씨야태평양함대의 전체 부대들이 １４일 비상검열을 받기 위해 경보에 따라 훈련에 진입하였다.

３개 단계로 나뉘여 진행되는 훈련의 목적은 대양과 바다쪽에서 가해지는 《적》의 침공을 격퇴할수 있도록 군인들을 준비시키는것과 함께 전략핵잠수함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을 련마하는데 있다.

해군총사령관이 지휘하는 훈련에는 태평양함대와 함께 장거리항공대의 비행기들과 동부군관구 비행대 그리고 항공우주군 부대들과 보장부대들이 참가하게 된다.

국방상 쎄르게이 쇼이구는 해병들이 오호쯔크해의 남부수역에 대한 《적》의 침입을 막고 싸할린과 남부꾸릴렬도에 대한 《적》륙전대상륙을 격퇴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훈련참가자들이 집중적인 미싸일공격과 포사격을 극복하고 《적》잠수함들을 찾아내여 소멸하여야 하며 《적》함선공격집단과 지상대상들을 제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로동신문》

아시아의 대류행병상황

아시아에서 18 일현재 2 억 1 603 만 2 860 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154 만 2 932 명이 사망하였다.

일본에서 감염자수가 3 359 만 5 834 명,사망자수는 7 만 4 264 명에 이르렀다. 도꾜도의 감염자는 435 만 7 227 명이다.

웰남에서 감염자가 급증하고있는 가운데 지난주에 2 653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수도 하노이에서만도 17 일까지의 1 주일동안에 493 명의 감염자가 났으며 이것은 그 전주에 비해 7 배 증가한것이라고 한다.

타이질병통제국은 15 일까지의 1 주일동안에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입원환자수가 2.5 배 늘어났다고 밝혔다.

인디아에서 4 483 만 4 859 명,인도네시아에서 675 만 9 513 명의 감염자가 등록되였다.

한편 남조선에서 감염자수가 전날에 비해 1 만 6 508 명 늘어나 3 102 만 5 769 명에 달하였다.(끝)

유럽과 아메리카지역에서 《COVID-19》 계속 전파

유럽에서 18 일현재 2 억 4 838 만 2 262 명이 신형코로나비루스에 감염되고 203 만 5 348 명이 사망하였다.

로씨야에서 감염자수가 2 277 만 6 383 명으로 늘어났다.

프랑스의 감염자는 3 991 만 4 035 명,도이췰란드의 감염자는 3 838 만 5 526 명이다.

북아메리카의 감염자수는 1 억 2 599 만 4 813 명,남아메리카의 감염자수는 6 845 만 4 058 명에 달하였다.

미국에서 1 억 647 만 8 100 명이 감염되고 115 만 8 293 명이 목숨을 잃었다.(끝)

세계적인 물자원실태에 우려

얼마전 유엔이 세계적인 물자원실태와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26%의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있으며 46%가 기초위생시설이 부족한 곳에서 살고있는데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였다.

지난 40 년동안 물사용량이 해마다 약 1%씩 늘어났다고 하면서 보고서는 현재 10%의 사람들이 물자원이 극히 부족한 나라들에서 살고있으며 무려 35 억명이 최소 1 개월동안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살고있다고 밝혔다.

세계적범위에서 평균 80%의 페수가 그 어떤 처리공정도 거치지 않은채 버려지고있으며 일부 나라에서는 그 비률이 무려 99%에 달한다는데 대하여 보고서는 지적하였다.(끝)

여러 나라에서 사고로 인명피해

남아프리카에서 4 월 10 일까지의 5 일동안 전국적으로 185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225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 기간 고속 및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규정을 어긴 1 710 여명의 운전사가 억류되였다.

15 일 인디아의 마하라쉬트라주에서 40 여명의 승객을 태우고 가던 뻐스가 수로에 굴러떨어져 12 명이 죽고 25 명이 부상당하였다.

앞서 14 일 에짚트의 북부해안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4 층짜리 건물이 무너져 10 명의 사상자가 났다.

정부가 건물의 붕괴위험성에 대해 경고하였지만 주민들이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고 한다.(끝)



상식

changshi

봄나물과 그 료리



우리 인민들이 먼 옛날부터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온 봄나물은 맛이 좋을뿐아니라 건강에도 아주 유익하다.

고비볶음

봄나물의 하나인 고비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등과 여러가지 비타민이 풍부히 들어있어 영양가가 높으며 맛도 좋다.

고비의 뿌리줄기를 강장제, 리뇨제, 구충제로 리용하며 어린 잎은 지혈제로 쓴다. 이른봄에 어린 잎을 뜯어 데친 다음 우려서 쓴맛을 빼고 볶아먹거나 국을 끓여먹는다.



고비볶음을 만드는 방법을 보면 우선 고비를 끓는 물에 데쳐 5㎝ 길이로 썰고 돼지고기와 풋고추는 채친다.

볶음판에 기름을 두르고 돼지고기와 엇썬 파를 볶다가 풋고추와 고비를 넣고 물을 적당히 두면서 볶는다.

고비가 만문해지면 소금, 간장, 사탕가루를 두고 좀더 볶은 다음 다진 마늘과 참기름을 넣고 뒤섞어 그릇에 담아 실고추와 닦은 참깨를 뿌려 낸다.

더덕볶음



도라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덩굴풀인 더덕의 뿌리에는 단백질, 기름, 사포닌, 이눌린, 비타민 등이 들어있다.

사포닌이 들어있는것으로 하여 더덕은 기침약, 가래삭임약, 열내림약으로 쓸수 있다. 뿌리는 껍질을 벗기고 잘게 찢어서 쓴맛을 우려낸 다음 여러가지 료리를 만들어먹는다. 순도 데쳐서 찬물에 우렸다가 양념에 무치거나 국을 끓여먹는다.

더덕은 이른봄에 캔것을 료리가공에 리용하는것이 좋다.

더덕볶음을 만드는 방법은 우선 더덕을 물에 불구었다가 껍질을 벗기거나 껍질채로 불에 살짝 구워 칼로 옆으로 돌려깎는다.

다음 볶음판에 참기름을 두르고 더덕을 두고 볶으면서 채친 파, 다진 마늘, 간장, 고추가루, 닦은 참깨를 두고 양념한 다음 그릇에 담고 실파와 실고추로 고명하여 낸다.

두릅무침

두릅은 흔히 산과 들에 절로 나는 오갈피나무과에 속하는 잎지는떨기나무인 두릅나무에서



봄에 돋아나는 어린 순을 이르는 말이다.

햇순에는 단백질, 지방, 당질, 광물질, 미량원소, 비타민 등이 들어있다.

두릅은 독특한 향기가 있고 맛이 좋아 무쳐 먹을수 있고 김치를 담그어먹을수도 있으며 살짝 데쳐 초장에 찍어먹을수도 있다.

만드는 방법은 우선 두릅을 손질하여 끓는 물에 데친 다음 찬물에 1 시간정도 담그어두었다가 긴것은 절반 자르고 굵은것은 쪼개여 물을 짠다. 손질할 때에는 밑둥에 있는 나무가지와 같이 굳은 부분을 잘라내야 한다.

두릅에 소금, 간장, 식초, 채친 파, 다진 마늘, 참기름, 사탕가루, 닦은 참깨를 두고 무쳐서 그릇에 담아낸다. 잎이 피기전의 두릅은 소금, 간장, 참기름으로 양념하는것이 좋고 잎이 핀 다음의것은 초고추장에 무치는것이 좋다.



기대수명 81.3 세로 연장된다! 5 가지 장수비결→

생활조건과 의료조건이 향상됨에 따라 중국인들은 점점 더 장수하고 있는데 기대수명이 81.3 세로 연장된다.

우리 나라 사람들 점점 더 장수해

기대수명 81.3 세로 늘어날듯

3 월 30 일, 중국질병예방통제센터 만성질병센터 부주임, 류행병과 위생통계학 전문가 주맥경 연구원 등은《랜싯 공중위생저널》에 연구론문을 발표하여 2035 년까지 중국인의 기대수명이 81.3 세로 늘어나 국가 기대수명 향상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5 가지 장수비결

1.건강한 식단: 신선한 음식을 많이 먹고 가공음식을 적게 먹어야

과도가공식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되고 5 가지 이상의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을 가리키는바 일반적으로 설탕, 안정제, 방부제, 색소 등이 들어있다. 이런 식품들은 일반적으로 고당도, 고지방, 고칼로리 식품이다. 대표적으로 다양한 설탕 함유 음료, 빵케이크, 감자칩, 사탕, 햄버거 등이 있다.

2.운동량 늘리기: 운동은 최고의 ‘장수약’이다.

일상생활에서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늙어보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은 로년기에 들어서면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바로 다리거동이 불편해지고 힘이 빠지면서 상지의 운동기관보다 훨씬 빨리 로화가 오는 것이다.

3.규칙적인 일과 휴식: 젊을 때 밤을 새우기 좋아하면 나이 들어서 잠을 잘 못자

밥을 먹어야 할 때 밥을 먹고 잠을 자야 할 때 잠을 자며 놀아야 할 때 놀아야 잘 먹고 잘 자고 즐겁게 놀 수 있으며 기운이 난다. 만약 일과 휴식 시간이 문란하고 식사가 불규칙적이며 경상적으로 밤을 새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다면 정신상태가 점점 더 위축되고 생활이 뒤범벅이 된다.

4.좋은 정서: 정서가 좋지 못하면 양생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소용없다

장수하기 위해서는 즐거운 마음과 정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화를 내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게다가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만 다치게 할 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스스로 화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하고 될수록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5.정기검진: 많은 질병, 조기에 발견하면 모두 완치 가능해

최근 몇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통해 말기암을 발견한다. 사실 암을 비롯한 많은 질병들은 조기에 발견되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다. 고칠 수 없는 질병이라도 수명을 연장할 수 있고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다.

뇌의 피로를 가시는 체조

뇌의 피로에는 세가지 류형이 있다.

지각피로, 운동피로, 정서피로이다.

뇌의 피로는 일반적으로 과도한 정신적긴장상태를 가리킨다.

이러한 피로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신적휴식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뇌의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빨리 잠드는것, 깊이 잠드는것, 기분좋게 깨여나는것이 중요하다.

잠을 잘 자게 하는 만능체조가 있다.

그 방법은 다음과 같다.

반듯이 누워 두손을 몸옆에 놓고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누르면서 두다리를 올린다.

그다음 견갑골을 기반으로 하여 몸을 구부리고 두발끝이 머리우를 지나 방바닥에 닿는 위치에까지 가져간다.

처음에는 도저히 그렇게 할수 없다. 그것은 목덜미나 허리가 굳어졌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에는 발끝이 닿는데까지 하면 된다.

그러나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 운동에서 중요한것은 무릎을 곧게 펴는것이다. 몸에서 힘을 빼고 숨을 쉬면서 하면 잘된다.

이 자세를 20~30 초 동안 유지하면 발끝이 방바닥에 닿게 된다.

복부와 장기들에는 인체내 혈액의 거의 50%가 모여있기때문에 그곳에 울혈되여있는 경우가 많다.

이 방법을 적용하면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고 피가 온몸에 잘 흐르게 된다. 특히 경추가 쭉 펴지기때문에 목덜미에 울혈되였던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게 된다.

이 체조를 한 후에는 목덜미와 어깨부위가 시원해지고 잠이 잘 오게 된다.

주의! 낮잠, 이 시간을 초과하면 잘수록 몸에 해로워!

낮잠은 건강한 생활방식의 구성부분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봄철에는 쉽게 졸리기 쉬우므로 오후에 더 좋은 정력을 유지하거나 전날의 부족한 잠을 보충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있다.

하지만 잠을 많이 자면 오히려 몸이 상할 때가 있다.

낮잠 1시간 이상 자면 치매위험 40% 증가

2022년 《알츠하이머와 치매》잡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낮잠과 대뇌 로화 사이에는 량방향 관계가 있다고 한다. 낮에 과도한 낮잠을 자면 만년에 치매위험이 높아진다. 이와 동시에 알츠하이머병은 환자가 나이가 들수록 낮잠시간을 증가시킨다.

이 연구에는 평균 년령 81세의 성인 1401명이 포함되였는데 2주간의 연구 기간 동안 모든 참가자들이 수면사건을 측정하기 위해 손목에 시계와 류사한 장비를 착용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한시간 이내의 낮잠을 자는 사람에 비해 하루에 최소 한번 이상 한시간 이상 낮잠을 자는 사람의 치매위험이 40% 증가되였다.

낮잠은 20분 정도가 가장 적당해

낮잠을 자는 시간은 매우 중요한데 오래 자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점심 1시에서 2시 사이에 15분~1시간이 적당하며 20분 내외로 조절하는 것이 가장 좋다.

낮잠, 점심식사후 인차 자면 안돼!

많은 사람들은 점심식사후 졸음을 느낀다. 그렇더라도 식사후 10여분 정도 산책한 후 낮잠을 자는 것이 가장 좋다.

점심을 먹으면 체내의 많은 량의 혈액이 위쪽으로 흘러가 뇌의 산소공급이 현저히 감소하는데 바로 잠들면 뇌에 대한 혈액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 또한 많은 량의 음식이 위에 축적되여 누워 낮잠을 자면 위 속의 음식물이 역류하기 쉽기에 음식의 완전한 소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식도를 손상시킨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카프)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 일명 《카프》는 1925년에 조직되여 1935년에 존재를 끝마쳤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맑스-레닌주의가 급속히 보급되고 로동운동이 앙양되는 사회적환경속에서 자기의 창작을 무산대중의 리해관계와 결부시키려는 작가들이 출현하고 그들에 의하여 《염군사》, 《파스큐라》 등 문학단체들이 조직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프로레타리아문학의 기치를 든 새로운 경향의 문학(신경향파문학)이 출현하였다.

《신경향파문학》이라고 불리운 진보적작가들의 문학운동은 1925년에 조직화된 형태로서 조선프로레타리아예술동맹의 결성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조명희(1892—1942), 송영(1903—1979), 리기영(1895—1984), 한설야(1900—1976), 류완희(1903—?), 김창술(1906—?), 박세영(1902—1989), 박팔양(1905—1988)을 비롯한 진보적문학예술인들이 참가하였다. 기관지로 《문예운동》을 두었다.

《카프》는 1927 년에 전국대회를 열고 조직을 재정비하였으며 계급적립장을 뚜렷이 밝힌 새 강령을 채택하였다. 동맹안에 문학부, 연극부, 영화부, 미술부, 음악부 등을 두고 기관지의 이름을 《예술운동》으로 고쳤으며 지방도시들과 도꾜 등에 10 여개의 지부를 두었다. 《카프》는 1930 년에 다시 조직을 정비하면서 부를 동맹으로 확대개편하고 기관지로서 《문학창조》, 《연극운동》, 《집단》 등을 발행하였다. 《카프》가 조직되고 그의 진보적문학운동이 활발해지자 일제는 탄압을 강화해나섰다. 1931 년과 1934 년에 두차례에 걸쳐 사건을 조작하고 《카프》성원들을 대량적으로 검거투옥하였으며 1935 년 5 월에는 주요성원들을 수감시켜놓은채 강제로 《카프》를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후에도 대부분의 《카프》출신 작가들은 진보적문인으로서의 량심을 지켰다.

《카프》작가들은 일제식민지통치하에서 겪는 무산대중의 비참한 생활을 그리면서 그 원인을 계급적견지에서 밝혔으며 착취자, 억압자들을 반대하는 그들의 항거정신을 형상하였다. 특히 《카프》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1927 년 이후시기에 나온 장편소설 《고향》, 《황혼》, 단편소설 《락동강》, 희곡 《일체 면회를 거절하라》, 시 《민중의 행렬》, 《앗을대로 앗으라》, 《산제비》, 《진달래》와 그밖의 많은 작품들에는 로동계급을 비롯한 무산대중의 사회적해방을 위한 지향이 반영되여있다. 물론 일제의 가혹한 탄압과 검열제도로 하여 작품에서 혁명적인것이 적지 않게 삭제되거나 뚜렷이 강조되지 못한 점은 있으나 《카프》문학은 총체적으로 보아 그 내용이 사회주의적이였으며 형식에서도 민족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리여 사상예술적으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카프》의 작품에는 비판적사실주의작품도 있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도 있다. 특히 《카프》가 새로운 강령을 내놓은 이후시기에 나온 작품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품들이라고 볼수 있다. 《카프》작가들은 비록 미약하지만 로동계급적립장에서 조직의 강령을 내걸고 투쟁하였으며 작품창작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립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명하였다. 더우기 1930 년대 《카프》문학은 항일혁명투쟁의 영향밑에 그에 대한 인민들의 뜨거운 공감과 지지성원을 반영하는데로 지향하였다.

《카프》는 부르죠아반동문학을 반대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리익을 옹호하여 문학운동을 전개한 진보적인 문학예술단체로서 해방전 우리 나라 프로레타리아문학예술발전에 이바지하였다. 그러나 《카프》는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를 받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작가들의 세계관적제한성과 작품에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하는 근본문제를 다루는데서 부족점을 면할수 없었고 날로 악랄해지는 일제의 탄압을 이겨낼수 없었다

형태주의원칙을 구현한 <조선어철자법>

단어를 글자로 적을때 지켜야 할 규칙의 총체를 철자법 또는 맞춤법이라고 한다.본래 언어는 음성언어로 되여있었다. 그러던것이 말소리의 시공간적인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글자를 만들어냈으며 글자로 매개의 단어와 문장을 적기 시작하였다. 처음문자가 생겨났을 때 해당 나라의 말을 적는데서는 여러가지 경향이 나타났다. 제각기 자기의 소리느낌을 기본으로 하여 적었기 때문에 한 단어의 표기가 통일되여있지 않아 언어의 사회적기능을 높이는데서 적지 않은 지장이 있었다.

자모글자를 쓰는 나라들인 경우에는 대체로 일찌기 철자법형태가 고정되였다.

우리 글자는 음절식으로 묶어쓰는 자모글자이다. 그러나 력대 봉건통치계급의 사대주의적이고 반인민적인 시책과 일본제국주의자들의 민족어말살정책으로 말미암아 우리 글은 규정과 규범이 바로 서있지 않았다. 특히 일제의 악랄한 민족어

말살정책에 의하여 자기의 말과 글을 마음껏 배울수도, 쓸수도 없는 형편에서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철자법규범을 제정하고 보급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였다. 일제는 강점초기부터 우리 나라 국어학자들의 연구할동을 탄압말살하였으며 일본말식으로 만든 저들의 철자법을 강제로 내리먹이였다.그리하여 가뜩이나 혼란되여있었던 우리말 단어의 표기형태는 더욱 혼란되게 되였다.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언어학자들은 일제의 조선말말살책동을 반대하고 조선어의 통일적 발전을 이룩하기위하여 노력한 결과 1933 년에 <한글맞춤법통일안>을 세상에 내놓았다.

조선어학회에서 작성공포한 <한글맞춤법통일안>은 당시 혼란되여있던 우리 말 단어의 표기형태를 통일시키고 조선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이 발표되자 국내에서 활동하던 카프작가들과 언론인들뿐아니라 국외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까지도 이를 지지환영하였다.

당시의 진보적인 문예활동가들인 리기영, 송영, 강경애,리북명 등 78 명이 <한글철자법시비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을 반대하는 일제와 어용학자들의 책동을 폭로단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거듭되는 방해책동과 조선말말살책동에 의하여 그 보급이 진행되지 못하고있었다.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앞에는 혼란된 철자법실태를 바로 잡고 우리 말의 통일적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야 할 과업이 제기되였다. 더우기 조선어학회에서 낸 <한글맞춤법통일안>이 일련의 결함을 가지고있었던것만큼 새 조국건설에 일떠선 우리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세련시키고 완성하여야 하였다.

<한글맞춤법통일안>은 무엇보다도 표준말에 대한 규정이 옳바르게 되지 못한 시대적제한성을 가지고있었다. 통일안에서는 표준말을 서울중류사회에서 쓰는 말로 규정함으로써 새 사회의 주인인 광범한 인민대중의 말이 배제되게 하였으며 이것으로 하여 새사회건설에 일떠선 광범한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에 맞게 조선말을 발전시킬수 없게 되였다.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조국이 북과 남으로 분렬된 조건에서 나라의 주인이 된 광범한 근로대중이 자기들이 쓰고있는 말은 뒤전에 밀어놓고 남조선에서 쓰는 그것도 인민대중이 아니라 중류사회에서 쓰는 말을 따라갈수는 없었다. 따라서 표준말에 대한 규정을 변화된 시대의 요구에 맞게 바로 정하는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로 나섰다. 맞춤법통일안은 또한 어법에 맞게 적는다고 하면서도 소리대로 적는것을 많이 허용한 약점을 가지고있었다.

맞춤법통일안의 총론 첫번째 조항에서는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하였는데 이 규정자체가 단어를 소리대로 적는것을 더 중요시하였다는것을 말해준다.

맞춤법의 제 4 장 제 2 절 43 항과 44 항을 통해서도 어법(형태부)보다 소리를 더 중시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43 항에서는 << <랴, 려, 료, 류, 리, 례>의 자음이 단어의 두음(첫소리)으로 올적에는 <야, 여, 요, 유, 이, 예>로 적는다,>>고 규정하고있다.

례를 들면 <<량심, 력사, 료리>>등은 <<양심, 역사, 요리>>등으로 적으면서도 <<개량, 리력, 자료>>등은 <ㄹ>가 그냥 있는것으로 적게 하여 단어의 첫소리와 단어가운데서 표기를 달리함으로써 한자표기형태를 고정시키지 않아 불편을 주고있었다.

44 항에서는 <<라, 러, 로, 루, 래, 뢰>>의 자음이 두음으로 올때에는 발음대로 <<나, 너, 노, 누, 내, 뇌>>로 적는다고 규정하고있다.

례를 들어 보면 <<락원, 로인, 루각, 릉묘, 래일, 뢰성>>등은 <<낙원, 노인, 누각, 능묘, 내일, 뇌성>>등으로 적는다고 하면서도 같은 <ㄹ>가 들어가 있는 <<쾌락, 옥루, 영릉, 거래, 지뢰>등은 <ㄹ>가 나타나도록 적는것은 원칙으로 하고있다. 이것도 역시 같은 뜻을 가진 하나의 한자에 들어있는 <ㄹ>를 그것이 놓여있는 위치에 따라 다시 말하여 첫소리로 날 때와 그것이 아닌 자리에서 날때의 표기를 서로 다르게 규정함으로써 동일한 형태부표기에서 어법(형태부)보다 소리를 더 중시하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처럼 <한글맞춤법통일안>은 몇가지 중요한 결함을 가지고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당창건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고 당의 이름을 <조선로동당>으로, 당보의 이름을 <로동신문>으로 표기하도록 하심으로써 한자의 형태부를 고정시키는 표기원칙을 견지하도록 해주시였다.

한자어의 어두 <ㄹ>, <ㄴ>를 한자발음대로 적지 않고 각기 <ㅇ>나 <ㄴ>로 적어나간다면 수많은 동음이의어를 낳게 되며 이것은 한자를 민족글자로 쓰고있는 다른 나라에서보다 동음이의어로 인한 부담을 더 많이 줄수 있다.

이처럼 한자음표기에서 두음 <ㄹ>, <ㄴ>를 언제나 한자본음대로 고정시켜 적도록 한것은 형태주의원칙을 한자어에 적용한것으로서 한자음표기를 통일시키는데서 획적인 전환을 가져온 정당한 조치였다.

1954 년초에 조선어 및 조선문학연구소안에 두었던 조선어철자법규정작성위원회는 위대한 수령님의 1954 년 7 월 15 일 교시에 기초하여 <조선어철자법>초안을 제정작성하고 광범한 군중의 건설적인 의견을 접수반영하기 위한 사업을 여러달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렇게 되여 1954 년 9 월에 <조선어철자법>을 완성할수 있었으며 세상에 공포하게 되였다. 철자법원칙에는 형태주의원칙, 표음주의원칙, 력사주의원칙, 어원주의원칙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이 여러가지 원칙가운데서 가장 과학적이며 인민적인 원칙은 형태주의원칙이다. 형태주의원칙은 뜻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인 형태부를 발음에 관계없이 언제나 일정하게 적은 원칙이다. 형태주의원칙은 발음대로 적는 표음주의나 써내려오는 관습대로 적는 력사주의원칙들과는 달리 형태부들의 뜻을 살려줌으로써 글을 보기 헐하게 하고 독서력을 높일수 있게 하는 좋은 점을 가지고있다. 형태부가 고정되고 뜻이 명백하며 독서력을 높일수 있게 되여있는것으로 하여 형태주의는 가장 과학적이며 합리적인 철자법원칙으로 되며 인민적인 철자법원칙으로 된다.

더구나 우리 말이 전형적인 교착어인것만큼 뒤에 들어붙는 여러형태들은 많은 경우에 앞단위와 결합하여 어음변화를 입게 되는데 어음변화와 관계없이 언제나 고정된 형태로 적게 함으로써 형태주의는 더욱 실용성있는 철자법원칙으로 된다. 더우기 한자말의 경우 언제나 그 표기형태를 고정시키도록 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조선의 민족료리



▶ 재료

소꼬리 300g, 밤 30g, 대추 30g, 은행 30g, 다진 파 20g, 다진 마늘 5g, 소금 4g, 간장 3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1. 소꼬리는 찬물에 안쳐 푹 삶는다. 삶아낸 소꼬리는 마디마디 토막을 내고 국물은 받아놓는다.

2. 꼬리를 삶아낸 국물에 다진 파와 마늘, 대추, 밤, 은행, 토막낸 소꼬리를 넣고 다시 끓인 다음 소금, 간장, 후추가루로 맛을 들여 그릇에 담아 낸다.

소꼬리는 지방함량이 47.1%이며 소고기에 비하여 열량은 3배나 높다. 밤과 대추를 비롯한 여러가지 보양음식들을 넣어 만든 소꼬리보신탕은 영양강화작용, 성장촉진작용, 조혈작용을 한다.

▶ 재료

소꼬리 200g, 해삼 50g, 붉은 고추 10g, 양파 10g, 국물 500g, 다진 파 5g, 다진 마늘 2g, 간장 3g, 기름 10g, 맛내기 0.5g, 소금 2g, 후추가루 0.5g

▶ 만드는 방법

1. 남비에 소꼬리, 양파, 소금을 두고 푹 삶는다. 소꼬리가 푹 삶아지면 절반 쪼개여 뼈를 뽑아낸 다음 토막으로 썬다. 해삼은 두쪽으로 가른다. 붉은 고추는 절반 갈라 씨를 턴 다음 송송 썬다.

2.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 파를 볶다가 소꼬리와 해삼, 국물을 붓고 끓인다. 한소끔 끓으면 송송 썬 붉은 고추를 두고 소금, 맛내기, 간장, 후추가루, 다진 마늘을 넣어 맛을 들인 다음 그릇에 담아 낸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

沈阳市牡丹文化艺术培训中心





艺术的摇篮　배움의 요람

심양시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는 예술의 요람입니다.
심양시모란문화예술쎈터는 조선과 문화예술을 교류하면서 조선평양음악대학을 졸업하고 오래동안 예술에 종사한 조선의 우수한 선생님들을 초청하여 학생들을 지도하고있습니다.
모란문화예술양성쎈터에서 배운 많은 학생들이 전국예술콩클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本中心与朝鲜文化艺术部门进行长期交流。聘请了毕业于朝鲜平壤音乐大学，从事多年艺术工作的优秀教师。在朝鲜教师的 精心指导下， 本中心很多学员在全国各种文艺比赛中获得了优异成绩。

地址：沈阳市皇姑区三江街3-2
电话：024-86426512
13516032172

